

카 K NO U

DREAM JEJU

제주도민과 소통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매거진

2023
봄
SPRING
Vol. 38



고지도(古地圖) 속 제주

고지도 속 제주는 지금의 지도와는 달리 다양한 모습으로 담겨 있습니다. 제주가 담긴 고지도 중 대표적인 것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1861)입니다.

지도에 표기된 옛 한자지명 또한 지금의 지명과는 달리 생소합니다만, 그 안에는 지명의 유래와 제주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제주목(濟州牧) 서부지역

- ①도원악(道圓岳) : 제주시 도두동의 도두리옴 (도두봉)
- ②이생촌(伊生村) : 제주시 해안동에 있던 마을
- ③금물덕(金勿德) : 제주시 유수암리의 검은데기옴
- ④배령포(排鈴浦) : 배령이개, 지금의 한림읍 월령포구
- ⑤마두포(馬頭浦) : 말머릿개, 지금 한림항 일대 포구
- ⑥오소(五所) : 제주의 말목장 열 개 중 하나
- ⑦서별(西別) : 창고의 이름 서별창(西別倉)을 줄여서 표기.
동별(東別) 1개, 서별(西別) 2개가 있었다.

Cover Story

쪽파 이야기

『드림제주』 봄호가 찾은 '고지도 속 제주'는
애월읍·한림읍·한경면 등 제주 북서부 지역입니다.
지역 특산물인 양배추, 브로콜리, 비트 등
양채류(洋菜類) 주산지이자
전통적 으로는 쪽파, 양파 등을 주로 재배해왔습니다.
특히, 따스한 제주 겨울 햇살과 해풍을 받으며 자란
싱싱한 쪽파를 정성스레 손질한 제주의 제철 간쪽파는
이 지역 대표 농산물입니다.
제주어로 쪽파를 '패마농'이라고 하는데,
쪽파의 머리가 여러 개 무리로 패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패마농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2023년 『드림제주』 겨울호에서 고지도 속 제주의 완성본을 만나보세요.



당신의 봄은 안녕하십니까

김애리사

사월 어느 담벼락에서 목련꽃잎이
누추하게 툭 하고 떨어지는 걸 보았다
한때 새하얗게 빛났던 당신
아무데서나 자동으로 고꾸라지는
누런 두 무릎이 목련

꽃이 피는 건 결국 꽃잎을 떨어뜨리기 위해서일 텐데
당신이 기르던 나무엔 떨굴 꽃잎 하나 피어나지 않고
결가지만 무성했다, 가지치기가 필요했을 시간
지나간 여러 개의 봄날들은 리셋되길 바랐을지도 모를 일

아지랑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봄날
벚꽃 개화 시기 지도 찍어 마음에 붙이면
발가락에 뿌리가 내리고 손가락에 잎이 돌아나고
적당한 시기 되어 두 눈에선 연분홍빛 벚꽃이 피어날까

당신이 살아가는 일에 보름달처럼 은빛 가득 차 일렁이는
환한 이유 하나 만들어 주고 싶었다
우연과 필연으로 얹혀드는 봄날들 사이에
은빛으로 반짝이는 이유 하나쯤은 있어야 하니까

개나리들 때 지어 날아올라 노랗게 은하수 만들어 내던 밤
그 속 작은 섬으로 노 저어 소풍 다녀오신다던 당신
다시는 이곳으로 내려오지 않은 당신
당신의 봄은 안녕하십니까

올 봄에도 나는 안부 묻지 못한다

1970년 강화도에서 태어나 지금은 제주도에 살고 있다.
섬에서 태어나 섬에서 살고 있다. 제주도 해안도로와 오름을 좋아한다.
2018년 《창작21》 시부문 신인상으로 등단, 한국작가회의 회원, 제주작가회의 회원,
창작21작가회의 회원, 한국사진문학협회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시집 『히라이스』(2018), 『처마의 원주율』(2022)과 합동시집 『시골시인-J』(2022)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지
3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봄입니다.

매화가 물고 온 봄소식은 유채꽃과 벚꽃이 바통을 이어받으며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의 발길은 사뭇하고,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문화예술 축제 소식은 마음마저 풍요롭게 합니다.

제주에서는 봄이라고 마냥 설렐 수는 없습니다.
4·3이라는 진한 아픔이 붉게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4·3 75주년을 맞은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지
3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4·3특별위원회는 1993년 4·3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구성된 첫 번째 기구라는 자부심으로
4·3에 대해 올바른 역사 정립과 도민사회 화합을 위해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이번 「드림제주」 봄호에서는 출범 30주년을 맞은 4·3특별위원회를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제주의 봄을 문화예술로 들여다보고, 문화의 관점에서 톺아보는 기획도 마련했습니다.

‘드림인터뷰’를 통해서는 여성 첫 이사관이자 제주도 최초 여성 의회 사무처장 타이틀을
지닌 김애숙 사무처장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밖에도 제주어로 읽는 시조, 성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한 기획, 제주의 현안뿐 아니라
다양한 제주도의회 의정활동 소식까지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드림제주」 봄호가 알차고 설레는 2023년 한 해를 모색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알찬 선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자료의 수집과 정리, 집필에 수고하신 편집 관계자 모든 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3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 경 학

01 사진과 시
당신의 봄은
안녕하십니까

02 발간사



특집

특집 1
만개한 제주의 봄,
제대로 즐기

08 봄 인사에 전하는
우리의 활짝 핀 화답,
제주 봄축제

12 제주 일상 속
문화예술을
실현하다

18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걷는 풍성한 제주

특집 2

22 문화를 누리고
예술을 즐기는
건강한 제주를 위해
_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8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안착을 기대하며

30 제주관광
빛이 중헌디?

32 제주 체육 진흥을 위한 제언

도의회는 지금

36 의정모니터

42 현장 속으로

46 특별위원회 탐방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하여
_ 4·3특별위원회

50 의정칼럼
공공요금 인상
그리고 제주도정의 역할

52 축산악취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54 대통령 안의
'카르텔'

56 드림 인터뷰
최초라는 수식보다
최선을 다한 공직자로 남도록
_ 제주도의회 김애숙 사무처장

60 이달의 법률

61 연간 일정

제주 속으로

- 62 **문화곶자왓**
삼별초와 김통정은
유채꽃 날리는
봄을 알기나 할까
- 68 **굼들락한 제주**
거북이처럼
제주다움은
장수해야 한다
- 72 **제주 시향(詩香)**
어머니의 숨비소리
- 74 **탐라기행**
영주십경의 유래와 변천
그리고 미래

도민 속으로

- 78 **가름산책**
엄마 만나러 가는 길
- 84 **탐라지인(耽羅之人)**
한담마을 장한철산책로와
「표해록」
- 86 **동인열정(同人熱情)**
제주의 돌을
보석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사)제주돌담보전회
- 90 **중을 지도**
제주민속오일장 지도
- 92 **독자설문**



“드림제주”의 정기구독은 홈페이지(www.council.jeuu.kr/의정활동/의회간행물/소식지 신청)
또는 전화(064-741-2285)로 신청하시면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소식지 드림제주에 실린 내용물의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만개한 제주의 봄, 제대로 즐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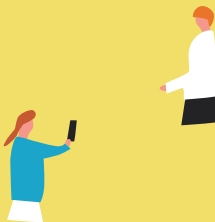




다시 맞이한 제주의 봄,
올봄은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한 봄입니다.

들녘에 만개한 봄꽃을 보며
해마다 피는 꽃이라고 언제 한 번이고 무덤덤한 적 없었지만,
지난 3년 동안은 들불로 타고르고 봄꽃으로 만개했을 제주의 봄을
유독 마음으로만 반기고 눈으로만 감사를 전하며 아쉬움을 달래야 했습니다.

부디 올해는 제주의 희망 가득한 새봄을 모두 함께 축하하며
눈부시게 찾아온 제주의 봄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봄 인사에 전하는 우리의 활짝 핀 화답, 제주

꽃씨 속에서 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눈길마다
발길마다 봄은 꽃으로 인사를 전한다.
먼 길 돌아서 온 봄의 인사를 그냥 안방에 앉아서
받을 수는 없는 법! 사람들은 축제로 봄이 전하는
인사에 화답한다. 봄기운이 여물대로 여물어 툭툭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하면, 제주 곳곳에서는
봄축제가 만개하듯 흥이 오르고, 겨우내 눈 쌓인
마음도 어느새 사르륵 녹아버린다. 바라만 봐도
좋은 봄을 서운하게 보내버린 지난 4년을 뒤로하고,
올해는 덩실덩실 봄축제와 함께 봄 내음에 마음껏
취할 수 있도록 제주가 제대로 판을 깔았다.
민낯으로 오랜만에 두 팔 벌려 껴안아 보는 봄을
데리고 꽃길 따라 제주의 봄축제에 다녀왔다.



제주 성안이 들썩이는 신의 봄축제, 탐라국입춘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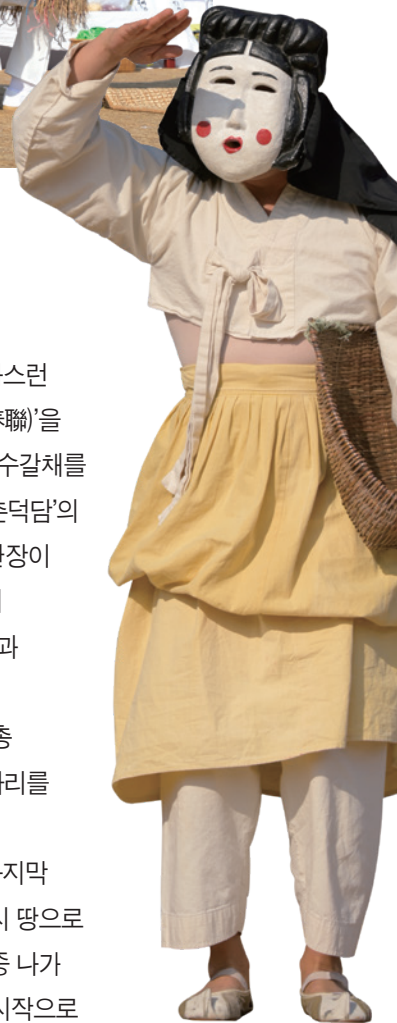
1만 8천 제주의 신들이 옥황상제에게 새해 업무를 보고하기 위해 하늘에 다녀오는 친구간이 끝나면, 한 판 신명 나는 곳으로 제주의 봄을 뽐하고 깨운다. 입춘날에 제주목관아 일대에서 심방(무당)이 신들의 강림을 청하는 굿을 주재하며, 관아의 목사와 호장, 기생,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시적 입춘굿놀이로 삼국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제주의 대표 전통 민속 축제이다. '성안이 들썩, 관덕정 꽃마중'을 슬로건으로 시작된 '2023 계묘년 탐라국 입춘굿'은 1월 20일 입춘맞이를 시작으로 2월 2일 거리굿, 2월 3일 열림굿, 2월 4일 입춘굿까지 다양한 문화 행사와 함께 제주 원도심 성 안팎으로 사람들이 들썩들썩 흥겨웠고 민낯으로 꽃마중 가는 길은 웃음이 환하게 활짝 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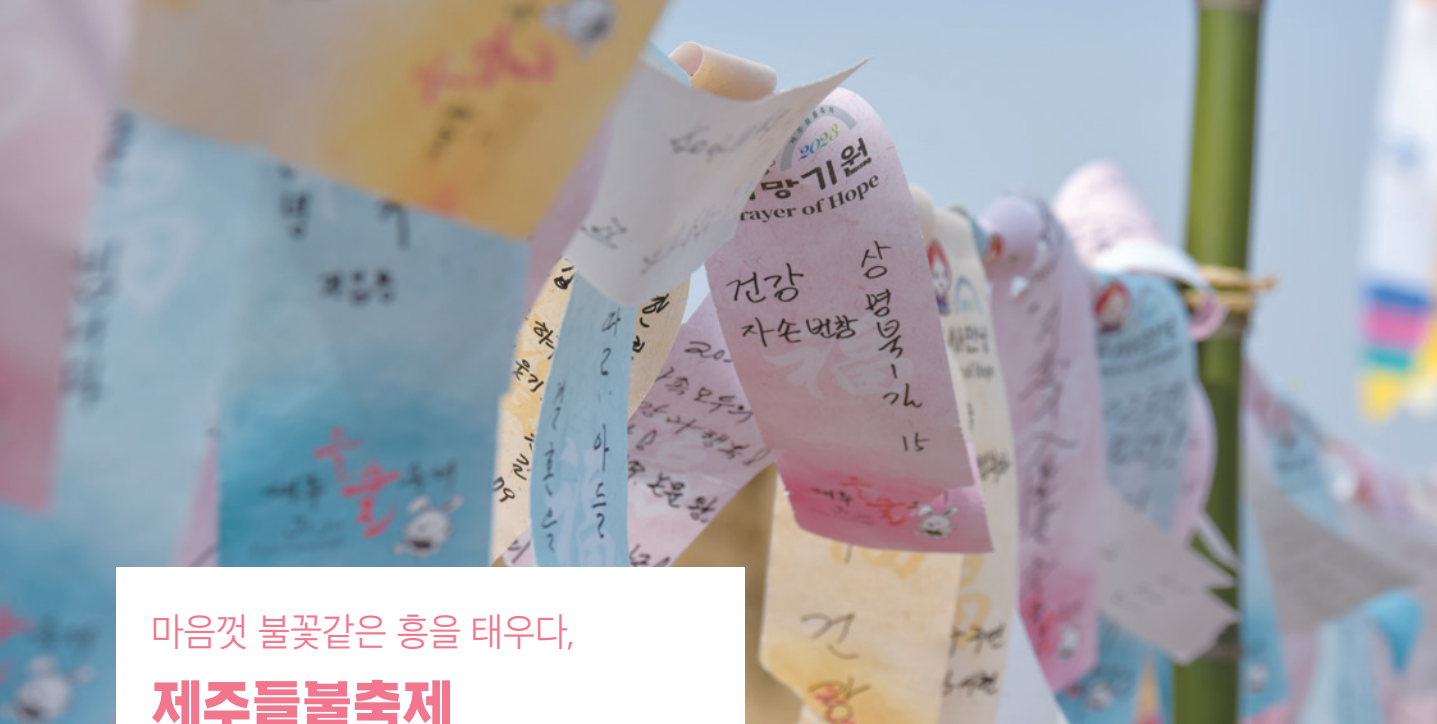
탐라입춘굿은 제주 동문과 남문, 서문에서 각각 출발해 관덕정으로 이어지는 도성삼문 거리굿과 입춘 풍물놀이를 비롯한 춘경문굿 등의 행사로, 제주 원도심을 누비며 무사안녕과 가내 풍요를 기원하는 춘등을 나눠주며 첫날의 축제문을 활짝 열었다. 관덕정 마당에서 펼쳐진 '입춘회호'는 오석훈 전 제주민예총 지회장이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 즉 '봄이 들어서는 날을 맞아 크게 길상하시고,



온 세상에 양기가 차오르는 봄에 경사스런 일이 많으시기를'이라는 뜻의 '춘련(春聯)'을 시원하게 써 내림으로써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얻어냈다. '낭쇄몰이'와 함께하는 '입춘덕담'의 호장은 박찬식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장이 맡아 나무 소를 몰면서 원도심을 돌며 발걸이하는 의례를 통해 한해의 풍년과 도민의 안녕을 기원했다.

강병삼 제주시장과 김동현 제주민예총 이사장 등이 참여한 '사리살성'은 향아리를 깨뜨려서 모든 액운을 제주도 밖으로 내보내는 의식을 진행하였다. 축제 마지막 날인, 하늘로 잠시 올라간 신들이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입춘날에는 5리 밖까지 마중 나가 신들을 안내해 오는 '오리정 비념'을 시작으로 제주큰굿보존회가 집전을 맡아 초감제를 선보이며 1만 8천 신들을 굿판에 모아 입춘굿을 진행하였다. 그 밖에도 '주쟁이 허멍이 만들기 시연 및 체험'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제주 토속문화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호응도가 높았지만, 그동안 코로나19로 이뤄지지 못했던 입춘천냥국수와 제주향토음식 등 먹거리 마당과 입춘장터로 참가자들의 눈과 입을 마음을 흡족하게 채워주었다.





마음껏 불꽃같은 흥을 태우다, 제주들불축제

제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인 제주들불축제가 지난 3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셋별과 같이 빛나는 새별오름에서 4년 만에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대면 축제로 개최되었다. '희망을 품은 제주들불, 세계를 밝히다'를 주제로 한 이번 들불 축제의 첫날은 9일 삼성혈 불씨채화 제례를 시작으로 포문을 열었다. 제주시청광장으로 이어지는 들불희망불씨 봉송 퍼레이드가 진행되었고, 들불희망불씨 안치 퍼포먼스와 지역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서막연회가 시청광장에서 펼쳐졌다. 다음날 10일 새별오름 일대의 축제장에는 봄나들이를 나온 도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와 함께 본격적인 체험 참여와 전시 프로그램 등이 열려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다. 이날 제주의 풍요와 발전을 원원하는 희망기원제를 시작으로 제주전통문화경연에서 열린 읍·면·동 줄다리기는 참여자와 관람자 모두에게 옛 학창시절 추억을 소환하며 축제장은 마치 왁자지껄한 학교운동회 같았고 웃음꽃이 봄처럼 만개하였다. 저녁에는 개막식과 개막 축하공연(희망콘서트)이 화려하게 이어져 온종일 지루함 없이 쉴 새 없이 축제를 즐길 수가 있었다. 주말인 11일에는



말과 한몸처럼 움직이는 몽골 출신 기마단원들의 마상마예 공연을 비롯해 녑둥베기(웃놀이) 체험행사, 듄돌들기대회, 제주어퀴즈대회, 전도 화합 풍물대행진, 불농기 주제공연 미디어아트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날 전국적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발령되면서 행사의 백미인 오름 불농기와 달집 태우기 행사는 취소됐지만, 관람객 모두가 하나 되는 풍물놀이 '느영나영 대동놀이'는 그동안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며, 들불보다 더 힘차게 타오른 불꽃 같은 흥으로 올 한 해 모든 액을 태워버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축제 마지막 날 12일에는 새봄 새희망 묘목 나눠주기, 농수축산물 그랜드세일, 도민노래자랑, 오름 플로깅 페스타 등으로 축제를 마무리했다.



인향으로 품고 싶은 저지리 꽃자왈, 제주 백서향 향기 축제

제주에서 자라는 ‘제주백서향’(Daphne jejuensis M. Kim)은 일반 백서향과는 달리 꽃받침통과 열편(꽃잎이 펼쳐진 부분)에 털이 없고 잎이 긴 타원형이며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에서 자생한다는 특징으로 2013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새롭게 명명된 식물이다.

꽃자왈이란 독특한 지형에서 2월에서 4월까지 하얀색 꽃을 피우고, 만개한 꽃의 진한 향기가 멀리 멀리 퍼져 나가기 때문에 ‘천리향’이라고도 불린다. 꽃자왈에 봄의 전령처럼 제주백서향이 피기 시작하면 개구리발톱, 큰개불알풀, 탐라현호색 등이 차례로 꽃이 피고 종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후박나무 등에도 꽃이 피기 시작하며 꽃자왈에도 비로소 봄이 완연해진다.

저지리 꽃자왈 제주 백서향 향기 축제는 마을주민과 관광객들의 참가로 이뤄지는 지역축제다. 지난 3월 4일은 올해 첫 회를 맞은 제주 백서향 향기 축제가 진행된 의미있는 날이었다. 제주 저지리 마을에 있는 저지녹색농촌체험장과 제주 저지리 꽃자왈 일대에서 단 하루 열리는 소박하지만 알차고 귀한 축제에는 지역사회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축하 공연과 즉석 노래자랑으로 참가자들의 흥을 깨웠고, 업사이클링 및 향토음식 체험과 백서향 사진



백서향 © 국립생물자원관



콘테스트와 천리향 플리마켓 등의 다양한 체험 행사가 하루 동안 다채롭게 펼쳐졌다.

축제의 메인행사인 백서향 트레킹은 맞춤형 버스 운행과 전문 해설사의 자세한 설명이 참가자를 위해 세심히 준비되어 있었다. 1회차마다 참가자 인원을 최대 2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번잡함과 요란함 없이 적당히 들뜬 마음을 갖고, 봄 신부의 부케 같은 사랑스러운 백서향을 마음껏 눈으로 즐길 수가 있었다. 달콤한 제주백서향에 취해 올레14-1길로 이어진 제주백서향 자생지의 길을 걷고 있노라면, 제주 고유의 토생식물인 제주백서향에게 왠지 고향 친구 같은, 인향나뭇잎이 좋은 친구 같은 친밀함과 동경이 함께 느껴진다.



제주 일상 속 문화예술을 실현하다

글 김 나 영 뉴제주일보 기자

日常

올해부터 향후 5년 간 제주 문화예술 정책의 청사진인 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의 4대 핵심 가치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일상'이다.

제주도민이 문화예술 관람을 넘어 주체가 되고자 하는 추세를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도민 수요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일찍이 드러나고 있었다.

2019년 제주도립예술단원이 직접 강사로 나서 시민을 무대에 세우는 시민 음악 아카데미가 개발돼 인기몰이가 시작되었고, 2020년 시민 공연 연습장 서귀포시 '생활문화플랫폼'이 문을 열어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연 연습장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2021년에는 무료로 악기를 대여할 '악기도서관'까지 탄생했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도내 기존 공립 문화예술공간도 잇따라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내놓기 시작했다.

나아가 최근에는 문화예술 향유 순환체계가 완성되는 최소 단위인 생활권 단위에서부터 일상 문화 향유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제주에서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는 생활권 단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에 제주에서 일상 속 문화예술을 누릴 각종 문화예술 강좌, 교육, 체험 현장 등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본다.



몰입형 문화향유...

공간 활성화는 덤

문화시설 내 체험 행사는 방문객에게 일상 속 몰입형 문화 향유 기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에는 공간 활성화 및 방문객 개발의 효과가 있다.

최근 이를 통해 큰 효과를 본 사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다. 기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추사관 관람객이 5만 2911명으로 전년(2만 1652명) 대비 144% 증가했다. 문화상품 판매액도 2021년 3200여만 원에서 지난해 7200여만 원으로 두 배가 넘었다.

세계유산본부는 이를 기존의 단순 전시 형태에서 '문화가 있는 날 추사 캘리그래피에 빠지다' 사업과 '지역학교 연계 어린이 예술교실' 프로그램 등 지난해부터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새로 선보인 것을 주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추사관은 올해 매월 마지막 주 수, 토요일 두 차례 추사선생 관련 문양(세한도, 수선화, 장무상망)을 참여자가 직접 눌러 찍는 레터프레스(판화)와 캘리그래피를 결합한 '추사 캘리그래피에 빠지다'를 진행해 운영하고 있다.

또 세계유산본부는 올해부터 한란전시관 활성화를 위해 다채로운 한란 콘텐츠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매달 1회씩 난 관련 전시를 비롯해 매 주말 배양, 현미경 관찰, 자연과학 실습, 난초 드로잉 등 아트체험을 운영한다. 오는 11월부터는 한란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한편, 제주도립미술관은 4월 23일까지 열리는 '제주 작가 미سم' 전시와 연계해 참여 작가들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강연 및 체험을 운영한다. 4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미술관 강당에서 작가가 직접 작품세계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도 받는다.

체험 프로그램도 이뤄진다. 4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제주도립미술관 강당 입구 체험공간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이 직접 판화 제작과정을 경험하고 결과물을 가져가는 판화(드라이포인트) 체험이다.



'문화가 있는 날 추사 캘리그래피에 빠지다' 사업 ©제주추사관



삼도2동 문화의 집 내부 모습
©김나영

관람 넘어 문화예술 주체로

도민이 문화예술의 주체가 되어볼 수 있는 문화 강좌가 잇따라 마련되고 있다. 공연·전시 관람을 넘어 직접 화가, 음악가, 문학인이 되어보는 등 문화예술의 주체가 되는 시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올해 도민 5810명을 대상으로 능력개발, 인문·교양, 역사문화 탐방 등 총 137개 과정 전문·문화교육을 운영 중이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드론코딩과 방과후 지도사, GTQ 포토샵 시험대비, 작가 등 취·창업 지원, 문화적 소양 함양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테마가 있는 제주의 자연과 역사를 소재로 한 4·3역사, 오름, 곶자왓, 신화문화탐방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도 나서고 있다.

또 교육·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사회복지관련 기관(시설)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배달강좌를 운영하고, 읍·면지역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설문대여성마을학교도 추진 중이다. 현재 매달 셋째 주 토요일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기는 ‘설문대 문화의 날’을 마련해 국내 우수 공연·명사 초청 행복특강 등 문화 행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10월 셋째 주에는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설문대 문화축제 한마당’을 개최해 교육 수강생 작품 전시 및 공연, 문화장터를 선보일 계획이다. 만 18세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매월 15~17일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다.

제주문화원은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제주문화원에서 시민들의 다채로운 문화 향유 계기 마련을 위한 문화학교, 제주신화전설인형극단, 실버합창단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문화학교에서는 요일별로 ▲서예(월) ▲민요(월) ▲사진(화) ▲전통조각보(화) ▲한문(수) ▲문예창작(목) ▲서양화(금) ▲수채화(금) 등 여덟 개 문화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주 월요일 이뤄지는 문화대학은 제주도 마애석각부터 제주신화, 1950~70년대 제주인의 삶, 제주 향토사 원로특강 등 다채로운 지역 향토문화를 이론과 답사로 즐길 수 있다. 이외 제주문화원은 제주 전통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향토사로 발간 및 마을기록화사업, 제주신화전설인형극단, 실버합창단 운영 등을 추진 중이다.

서귀포시 기당미술관은 오는 4월 5일부터 6월까지 기당미술관 일원에서 상반기 성인 실기교육 프로그램 '서양화 살롱'을 진행한다.

수채화나 유화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자기개발과 여가 선용을 위해 만 18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교육기간은 4월 5일 평일반을 시작으로 평일반은 6월 21일, 주말반은 6월 24일까지 진행된다. 평일반(수요일)과 주말반(토요일)은 반별 총 12회 수업에 각 15명씩 모집한다. 수업내용은 평일반의 경우 수채화 및 유화 중 수강자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재료를 선택해 수업할 수 있다. 주말반은 수채화 강좌만 배울 수 있다.

공공 문화시설뿐 아니라 민간 문화공간에서도 다채로운 문화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 지역 전역에 흩어져 있는 동네책방들은 공간별 SNS나 블로그를 통해 북토크, 문화 클래스 등 이색 기획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제주에 살고 있거나 머무는 기간 동안 관심 가는 동네책방을 찾아가 다양한 강좌와 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아울러 도내 공사립 미술관을 통틀어 유일하게 문화예술교육사를 보유한 1층 사립미술관 김택화미술관에서도 드로잉 카페가 별개로 마련돼 드로잉을 체험해볼 수 있다. 아울러 연중 이곳에서 각종 미술 강좌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한란전시관 난 수채화 그리기 체험
©제주한란전시관



악기를 무료로 대여하는 악기도서관
©서귀포시

무료로 악기를 빌리고 연습한다

무료로 악기와 공연 연습공간을 빌리는 악기도서관과 생활문화플랫폼 이용자 수가 매년 늘고 있다. 서귀포시가 재작년 개관한 악기도서관은 서귀포시민이 무료로 악기를 대여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악기 대여 서비스를 활용한 시민 수는 재작년 247명에서 지난해 304명으로 늘었다. 바이올린, 우쿨렐레, 통기타, 플루트 순으로 대여율이 높았다. 악기도서관 보유 악기는 개관 초기 120개로 시작했지만 2021년 말 인기 대여 종을 파악해 10종 30개 악기를 추가했고, 현재 악기 150개가 대여 대상이다. 보다 많은 시민이 악기를 대여할 수 있도록 1년에 같은 악기를 3개월 이상 대여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었다. 2020년 문 열어 악기도서관과 같은 건물인 공공 공연 연습장 생활문화플랫폼의 경우에도 해당 공간을 이용한 서귀포 시민은 2020년 3900여 명, 2021년 5500여 명, 2022년 5673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생활문화플랫폼 관계자는 “취미 생활을 자유롭게 연마하고자 이 공간을 자주 찾는 분이 많다. 특히 악기도서관과 연계해서 악기를 빌리자마자 바로 연습실로 가는 등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시 내 공공 공연 연습장은 부재하다. 하지만 현재 오랜 표류 끝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재밋섬 건물을 매입해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주예총 또한 공공 공연 연습장 시설을 포함한 (가칭)제주예술인회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시가 오등봉 민간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화 시설 사업 중 500억 원 규모의 음악당 안에도 공공 공연 연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생활권 문화공간 활성화 해야

일상 문화향유는 생활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작 도내 생활권 문화공간은 사실상 행정과 주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실정이다.

2022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지난해 우도면 생활문화센터(1800명)를 제외한 남은 도내 생활문화센터 5곳의 평균 연간 이용자 수는 398명으로 하루에 한두 명 올까 말까 한 수준에 그쳤다. 또 제주는 문화의 집 수가 14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지만 운영 인력수(1.7명), 총 프로그램 수(1.6건), 동아리 수(0.9건)는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이를 놓고 생활권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 문화 공간을 계속 짓기보다는 기존 공간을 잘 가꿔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민룡 광주북구 문화의집 관장은 “제주는 생활권 문화시설을 마을별로 특화시켜 도약할 수 있다”며 “문화의 집은 기획에 따라 가변적으로 운영 가능한만큼 마을 특색을 공간에 잘 녹여낼 전문인력이 배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이광준 서귀포문화도시 센터장은 “하드웨어 조성 위주였던 기존 전통적 문화 공급 정책으로 제주에 문화시설이 많다”며 “이제는 프로그램 기획 운영을 위한 내용을 채워야 할 때”라고 밝혔다. 



시민들을 위한 공공 연습장인
서귀포시 생활문화플랫폼
©서귀포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걷는 풍성한 제주

글 / 사진 편집부



지난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 2015년 내국인 관광객 수 첫 1000만 돌파 이후, 꾸준히 1000만 명 이상의 내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350여만 명의 기록을 넘어 1370여만 명의 내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가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은 관광산업이 주력인 제주로서는 매우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이다.

현상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와 수요에 맞춘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과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제주 관광산업을 성장시켜 나갈 주된 원동력이 될 것인데, 이미 묵묵히 그 한 축을 맡아 제주의 문화와 자연, 역사를 알리고 제주를 찾은 모두를 제주의 매력에 푹 빠져들도록 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가 그들이다.



낮익지만 낯선 이름,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한일 월드컵’ 등 국가 행사를 맞아 외국인에게 우리의 역사와 문화·자연·환경 등 관광자원을 올바르게 알리고 이해시키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입되었다. 초기에는 ‘문화유산해설사’(2001년)의 이름으로 문화재나 문화유산, 자연유산을 중심으로 해설 활동을 해왔고, 이후 ‘문화관광해설사’(2005년)로 이름을 바꾸고 관광지, 관광단지, 역사·문화 유적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광자원으로 업무 영역이 확대되었다.

제주도는 2001년 제1기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과정을 통해 최종 40명의 해설사를 양성, 도내 공영관광지 및 유적지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설사 활동을 시작하였다.

현재 제주에는 190여 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도내 40여 곳의 공영관광지 및 유적지에서 제주를 알리고,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전도사로서 역할 하고 있다.

함께 걸으면 더 풍성해지는 제주

눈에 보이는 제주뿐만 아니라 무심코 지나쳤던, 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제주를 만나게 되는 뜻밖의 시간.

바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제주를 거니는 시간이다. 해설사로서의 왕성한 활동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사는 느낌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문화관광해설사협회 임명희 회장을 만나, 과거로의 시간여행은 하듯 생생하고 재미있는 해설과 더불어 제주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임명희 회장을 만난 곳은 ‘오현단’이다. 조선시대 제주에 유배되었거나 목사로 부임해 제주 지역 발전에 공헌한 다섯 현인을 배향하는 곳으로 지금까지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 임 회장은 오현단에서 2년째 활동 중인데, 활동 장소는 보통 3~4년 주기로 바뀐다고 한다.

“이곳은 다섯 현인에게 제사 지내는 곳, 오현단인데, 그렇게 불리게 된 역사적 사실 이전에, 제주 최초의 사액서원인

굴림서원이 자리했던 곳이에요. 보통 서원은 성현께 제사 지내고 인재를 교육하는 사설 교육 기관이었는데, 사액서원은 왕이 인정하고 현판과 재물을 내린 국립 서원인 셈이죠.”라며 임명희 회장은 오현단 이전, 굴림서원이 세워지기까지의 역사 이야기를 구성지게 풀어갔다.

이어 손수 준비한 탐라순력도 인쇄물을 보여주며, 지금은 제주성 밖에 있는 삼성혈이 옛 그림에는 성 안에 있었다고 설명한다.

“1700년대 초 이형상 목사에 의해 그려진 탐라순력도에 보면 삼성혈이 제주성 안에 그려져 있어요. 삼성혈의 옛 이름 모흥혈은 성밖에 따로 그려져 있고요. 원래 고양부 세 신인이 솟은 혈은 그대로 있고, 삼성을 제사 지내던 사당은 성안에 모셨던 것 같아요. 이후에 지금의 자리로 다시 옮겨간 거죠.”

삼성혈에 대한 설명이 오현단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겠지만, 조금 더 흥미롭고 폭넓은 해설을 통해





“다음엔 친구 데리고 꼭 다시 와야겠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큰 보람이죠.”

방문객에게 만족을 주고 제주에 관한 관심을
더하도록 하는 이야기들,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지나쳤거나 미처 관심 두지
못했을 다양한 이야기들이었다.

임 회장의 해설은 오현단 길 건너 제이각에서 다시
이어졌다.



“제이각은 이름처럼 오랑캐의 침입을 막던 누각, 왜구
방어용 망루였어요. 성의 가장 높은 위치에 누각을 세워
바다로 침입하는 왜구를 살피는 용도로 사용했죠.”라며
성의 구조며 축조방법, 축성 당시의 규모와 중요도까지 실로
해박하고 폭넓은 임 회장의 해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게 되는 매력이 넘쳐났다.

해설사로서의 문화관광해설사의 삶

임명희 회장의 해설이 마무리 될 즈음,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게 된 계기에 관해 물음에 지금의 자신처럼 다른
해설사의 해설이 문화관광해설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다지게 된 계기라고 한다.

지난 2003년 비자림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사람들이
모여 해설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길래 잠시 귀동냥 삼아
들었는데, 그때 해설사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다고 한다.
비자림에 대한 해설이라면 당연히 나무나 식물에 관한

내용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정작 해설사의 해설은 그
지역 역사에 관한 얘기였다고 한다.

조선시대, 비자나무를 판자로 만들어 공물로
바쳤어야 했는데 매우 고된 일이었다. 당시 제주 전역에
자라던 비자나무에 대해 공물을 바치게 할까 두려워
제주 동쪽 지역, 지금의 비자림 주변을 제외한 지역의
비자나무는 다 잘라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는 해설이
임 회장에게는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이다. 식물에
관한 이야기에서 역사 이야기로 이어지고, 비자나무 하나를
갖고도 제주도 사람들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해설사의
매력에 빠지게 된 임 회장은 자신도 문화관광해설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고 한다.

“그다음 해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과정에 참여하게 됐고,
처음 배정받은 곳이 또 비자림이었어요. 재밌는 인연이죠
(웃음).”라며 임 회장은 20년 전,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첫발을 내디뎠을 때를 추억했다.

“그때 하루 활동비가 3만 원이었는데, 왕복 기름값에
점심값까지 하고 나면 남는 게 전혀 없었지만, 하루 7시간
근무하면서도 너무 좋았어요.”라고 말하는 임명희 회장이다.
“만약 해설사를 직업이나 수익을 위해 시작했다면 힘들고
급세 그만뒀겠죠. 다른 해설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계세요. 대신 금전적인 것 이상의

만족감을 느껴요.”라며 “더 좋은 해설을 위해선 끊임없이 공부해야 해요. 제주의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 풍습 등. 제주 사람인 저도 미처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을 새롭게 공부하며 알게 되고, 해설을 통해 관광객에게 알려드리면 다들 재밌어하시고 만족해하시면서 다음엔 친구 데리고 꼭 다시 와야겠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큰 보람이죠.”라고 임 회장은 말한다.

“관광객들이 방문한 관광지의 문화해설뿐만 아니라 제주 관광에 관한 모든 것을 문의하실 때가 자주 있어요. 주변 맛집은 어디냐, 다음 코스는 어디가 좋겠냐, 심지어는 오늘 물때가 어떻게 되느냐까지 물으시거든요. 그럴 때면 내가 문화관광해설사가 아니라 제주 관광 해결사가 되어야겠다 싶을 때가 많고, 실제로 아는 한 최선을 다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려고 해요. 말 그대로 해결사가 되는 거죠(웃음).”라며 웃는 임 회장의 얼굴에는 베테랑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긍심이 여실히 묻어났다.

자긍심과 보람도 크겠지만,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느냐는 질문에 처우 개선을 꼽았다. “현재 하루 활동비가 6만 원인데, 전국 최저 수준이에요. 금전적인 것보다는 보람 때문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활동하더라도 최소한의 활동비는 보장이 되었으면 해요. 특히 제주도는 한 달 중 최대 활동 일수가 15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더 그렇죠.” 그리고 행정적 관심과 지원에 대한 아쉬움도 이야기한다. “관광지에 따라서는 해설사 쉼터나 대기 장소가 별도로 없는 곳도 있어요. 하루 종일 활동하다 보면 불편을 겪고 힘들 때가 많죠. 비록 작지만 대기 시간에 잠시 쉴 수 있는 장소, 더 좋은 해설을 위해 정보를 얻고 정리할 업무용 PC 정도만 있어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라며 작은 관심과 지원이지만 제주 문화관광해설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한다.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20년 삶이 제2의 인생과도 같다는 임명희 회장은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해설사로 활동하고 싶다는 바람을 끝으로 이날의 해설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이날,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걷는 제주는 평소의 제주와는 다르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제주의 숨은 보물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 더 풍성해진 제주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누구든 제주를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일부러라도 꼭 한 번쯤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제주를 걸어보길 권한다. 🍵

오현단과 풀림서원에 대해 해설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협회 임명희 회장



문화를 누리고 예술을 즐기는 건강한 제주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글 / 사진 편집부



제주 예술인의 열정이 연소하지 않고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그 산물을 제주도민 누구나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문화 일상이 있는 곳, 제주.
균등화된 생활 스포츠 인프라 조성으로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 제주.
누구나 탐나는 일상으로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매력을 지닌 관광도시 제주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늘도 쉼 없이 도민 곁에서 함께 뛰고 있습니다.

봄의 전령이 시작된 3월 어느 오후,
다양한 정책과 적극적인 의정으로 제주도의 문화·관광·체육 분야 의정을 총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들을 만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좌로부터
정민구 위원
양경호 위원
홍인숙 부위원장
이승아 위원장
박두화 위원
강상수 위원
양영식 위원



이승아 위원장님, 먼저 도민 여러분께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어떤 일 또는 안건을 처리하시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주의 문화, 관광, 체육을 총괄합니다. 우선 도민의 문화권 신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건강 및 웰빙에 대한 변화된 미래 트렌드에 맞춰 좀 더 발 빠르게 도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삶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 자생의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적극적인 추진방안 모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대의기구입니다.

제주의 문화·관광·체육 발전을 위해 위원회와 위원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위원회를 이끄시는 위원장직을 맡으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지난 3년 동안 혹독한 시기를 묵묵히 견뎌온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새로운 활기와 온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쳐있는 도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경제적 가치를 향해 유기체적 방향성을 가지고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도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일곱 분의 의원들이 함께 마음과 머리를 맞대고 제주가 제대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생기가 났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각별히 염두에 두시거나 나름의 운영 방침, 소신이 따로 있으신지요?

우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의 제주로서, 나아가 도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관광 산업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 도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생활체육 정책을 통해 도민께 의정활동의 결과물을 안겨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 중인 위원들



다음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공통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이것만은 꼭 챙기겠습니다.”라는 각오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승아 위원장

제주시 오라동 / 더불어민주당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사회와 일상을
예상보다 길고 가혹하게 흔들었습니다. 도민의 삶과 밀접한
문화·관광·체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암울한 터널 속에 갇혀있던 문화예술의 순수본질을
회복시키고, 문화와 예술이 지향하는 가치를 재발견하여
다시 도민의 몫, 도민의 자리도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런 중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민 여러분이
정말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와 예술의 삶, 그리고
도민들의 건강을 향상할 수 있는 정책을 정말 세밀하게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부위원장

제주시 아라동갑 / 더불어민주당

우리 도민들을 위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민생정치로
도민분들의 기를 팍팍 살리는 민생 회복 현장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종사자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힘낼 수 있도록, 자신의
분야에서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구석구석 챙기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연계하여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도민의 삶을 단단하게 이어주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도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으로써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 / 국민의힘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전례 없는 위기로
관광산업에 심각한 피해와 충격을 주었고, 장기화한
코로나19의 거대한 위협으로부터 관광시장은 굉장히
위축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제주
관광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향후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주관광생태계도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지역에 개최될 ‘서귀포 K-POP 문화콘서트’처럼
제주의 가치와 매력을 문화 이벤트와 결합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가 되어 문화·예술·관광
경험을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힘쓰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 경험을 위해 자주 오고 싶은 제주, 오래
머물고 싶은 제주로 만들 제주 관광의 날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저는 난임 지원 정책을 출산 장려 정책에서 더 나아가
재생산 건강 증진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난임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특별
조례를 만들어서 특히 미혼 여성의 난자 동결 시술 활성화를

위한 의료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의원으로서 우리 도민들이 문화 향유권을 위해 제주 전역에 설치한 미술품 관리에 힘쓰고 싶습니다. 문화정책과에서 조사도 하고 추진 방향도 수립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관리가 미흡하고 제주 전역에 예술 홍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민들의 생활 속에 자리 잡은 공공 조형물 관리의 시작으로 예술을 제주 지역 활성화의 매개로 활용하고 공공미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 더불어민주당

국제 유가 상승으로 난방비 인상과 항공료 인상 그리고 물가·금리 상승으로 인해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상 회복 이후 해외로 빠져나가는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제주 관광 산업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빨리 파악하여 적시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고 제주 관광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었던 문화예술 활동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지역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예술 창작역량을 펼칠 수 있는 지원사업에 힘쓰고 우리 도민들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으로 일상이 건강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체육시설과 편의시설에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시 연동갑 / 더불어민주당

문화관광 체육 분야가 범위가 넓어서 챙기고 싶은 것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특히나 제주는 문화시설 접근성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제주는 자동차 없이도 일상이 가능한 쾌적한 도시가 되어, 복합문화체육시설에 걸어서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도민들이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연동에는 43개 읍면동 가운데 최초로 연동 아트홀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지역 문화 예술인들을 위한 문화 중심 거점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가 속한 연동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의 풍요로운 문화적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제주 문화 역량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 / 더불어민주당

지난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서 제주도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이 황폐해졌지만, 서서히 일상 회복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문화·예술 분야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제주도민의 문화·예술향유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고유성을 발견하고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는 자원을 발굴하여 도민들의 삶에 새로운 접근과 활동들을 지원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문화·예술프로젝트에 대한 실행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의 지역구에는 목관아와 관덕정이 있습니다. 저는 제주 목관아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문화 활성화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의 방향과 각오의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승아 위원장님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도민 여러분께 전하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도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상임위는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민분들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를 새겨들으며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제주 지역 문화·관광·체육 발전을 견인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안착을 기대하며

글 문순덕 제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정책을 추진할 때 효과성 검증의 방법으로 다양한 평가척도가 적용된다. 이때 공정·공평·상식·민주적이라는 전제가 붙어야 평가의 의미가 보장된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에 반영되고 있어서 큰 거부감이 없는 편이다. 반면 문화영향평가제도는 2014년 시범운영 이후 2023년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으나 이 제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편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계획과 정책에 문화영향평가제도가 적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주요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겠다.

2013년에 제정된 「문화기본법」 제5조의 4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로 정의되어 있듯이 문화영향평가가 법제화되었다.

문화영향평가는 해당 계획이나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가 아니라 그것들이 실행될 경우 국민들에게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분석하고, 문화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데 의의가 있다. 반면 문화영향평가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의 성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영향평가의 목적과 기대효과는 3대 영역과 6개 평가지표에 잘 반영되어 있으며, 문화기본권(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체성(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문화발전(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 해당된다.

문화영향평가는 2년간(2014~2015) 시범 운영된 이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우리동네, 원도심 행사 소품(출처 : 도시재생지원센터)

▼▼ 남성마을(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문화기본권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체성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이 제도를 도입한 정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주를 이루고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벤처부, 문화재청 등에서도 일부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문화영향평가온라인시스템 참조).

지난 9년간(2014~2022)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총 247건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평가 대상사업에는 총 5건이 있다. 그 대상 사업을 보면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2016), 제주 관광질적 성장 기본계획(2016), 제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본계획: 남성마을(2018), 제주시 문화도시 기본계획(2019), 서귀포시 문화도시 기본계획(2021)> 등이 해당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결과물을 보더라도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 중심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된 2014년 이후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겠다. 「문화영향평가제도 시행에 따른 제주의 시사점」(문순덕, 2016)이 발표되었고,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제주연구원, 2016)에도 이 제도의 시행이 핵심과제로 선정되었다. 문화영향평가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2018년 10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8조의2(문화영향평가)가 신설됨으로써(2021년 7월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영향평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개최되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년 1월 30일). 특히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계획(2023~2027)』 핵심과제로 ‘문화영향평가 운영 활성화’가



서귀포시 문화도시 '서귀포 시네마 라운지'
(출처: 서귀포시 블로그)



반영되었다.

결국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계획과 정책에 문화영향평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책 담당자들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 또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안착되기 위해서는 현재 개념 중심의 조례를 보완하거나 정책추진부서에서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 따라서 문화영향평가를 받은 계획과 정책이 사후까지 관리될 수 있도록 평가환류시스템도 준비되어야 한다. 문화영향평가는 지역과 지역민의 공동체정신을 유지하고, 문화자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 제주도의 문화자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데 문화의 관점으로 정책을 바라보고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 3년간 감염병시대를 살아오면서 경제적 가치가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문화영향평가는 평가라는 불편한 진실보다는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는 방법을 권장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위안으로 삼고 싶다. 🍷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제주관광 붐이 증한다?



마스크를 쓸까? 말까? 안 쓰면 왠지 허전하고... 약국, 병원은 써야 하니 갖고는 다닌다는 사람도 있다. 팬데믹(Pandemic) 즉, 감염병 세계적 유행이 끝나가고 있음을 느끼는 요즘이다. 마스크도 마스크지만, 여행의 추세를 봐도 알 수 있다. 3년여간 자기 나라에 묶여 억눌렸던 여행의 욕구가 폭발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빗장을 풀면서 코로나 유행시기에 금지되었던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다. 해외로 가지 못했던 지난날들의 분노를 여행으로써 표출하는 ‘보복여행’이라는 용어도 생겨났다. 여행수요가 증가하면서 여행 증가로 인한 여행 경비 증가를 뜻하는 ‘트립플레이션(Trip + Inflation)’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9년 여름부터 시작되었던 ‘노 재팬’(No Japan)운동을 기억할 것이다. 수년간 교류해 오던 단체들과의 결연취소, 불매운동까지 열기가 대단했었다.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까?

2022년 10월 일본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아무리 저렴해도 일본에 가지 않는다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렴한 항공권과 편리한 접근성 그리고 엔화약세 등의 이유를 들 수 있겠다. BTS를 중심으로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한국의 극장가는 ‘슬램덩크’, ‘귀멸의 칼날’ 등 일본애니메이션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뉴스위크 일본판은 지난 2월 24일 ‘방일 한국인 급증... 아무리 저렴해도 일본에 가지 않는다는 태도 달라져... 그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월 15일 일본정부관광국

(JNTO) 발표를 인용해 올해 1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 149만 7300명 중 56만 5200명이 한국인으로 전체의 38%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는 2위 대만(25만 9300명), 3위 홍콩(15만 9000명)에 비해 2~3배 이상 많은 것이다.

지난해 10월 11일 일본 정부가 무비자 입국을 다시 허용한 뒤 3개월간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에서 판매된 일본행 항공권은 전년 동기 대비 400배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도 4.8배에 이른다.

제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자.

해외로 나가려는 보복여행수요를 막을 수는 없다. 제주를 선택했던 국내 여행수요가 해외로, 가까운 일본으로, 동남아로 선택지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일본을, 동남아를 찾는 만큼 그들이 제주를 방문하는가 하는데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해외로 가는 내국인이 아니라,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타겟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제주 상해 직항노선이 운항 재개를 결정한 가운데 해외로 가는 직항노선들이 줄줄이 운항을 재개하거나 신설되고 있다. 3년간 꽉 막혔던 제주의 크루즈시장도 열리기 시작했다. 오는 3월 19일 11만 5천톤급 국제크루즈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승객정원 3000명)가 강정항 입항을 시작으로 28회에 걸쳐 관광객 7만 여명이 입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2022년도 아시아국가들 중에서 제주를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싱가포르, 태국, 중국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은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압도적 1위를 보였던 중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제주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싱가포르와 태국인 관광객 증가에서 보듯이 해외 직항노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팬데믹으로 지난 3년 간 여행사는 폐업이 속출했고, 숙박업소는 부도가 나서 주인이 바뀌었다. 호황만을 누릴

것 같았던 카지노, 면세점은 개점휴업이었다. 항공사, 전세버스도 말해 뭐하겠나... 해외여행수요가 폭증하는 지금 그들은 누적적자를 전환 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래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위한 제언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제주기점 해외항공노선을 다양화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주와 인연이 있는 자매결연도시, 우호협력도시를 중심으로 관광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셋째, 제주의 독특한 문화자원을 관광콘텐츠화하여 문화관광을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유행에 민감하기보다는 제주의 고유성을 보존하는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제주의 자연자원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전파하고, 친환경적 관광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오르막이 있어야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는 법이다. 제주관광이 언제나 호황일 수도 없고, 팬데믹의 고통이 영원할 수도 없다. 이제 긴 터널을 빠져나와 정상화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고, 묵묵히 어려운 시기를 버텨왔던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제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환영하면서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시스템을 정비해둬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

<표-1> 2022년 외국인 입도객 현황 재편집(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싱가포르	37	27	33	54	92	583	808	930	1,361	1,934	3,004	4,007	12,870
태국	81	45	58	59	88	217	123	1,000	419	1,759	3,934	4,814	12,597
중국	450	367	372	431	525	628	963	1,072	1,257	1,385	1,104	1,337	9,891
말레이시아	40	28	43	36	70	184	375	358	373	594	726	558	3,385
일본	116	85	85	103	175	134	138	240	234	244	1,018	641	3,213
대만	12	17	13	8	43	110	114	64	89	130	415	1,631	2,646
홍콩	5	7	20	7	34	112	78	52	63	119	518	520	1,535
베트남	34	28	44	29	60	79	139	135	86	162	455	73	1,324
인도네시아	18	56	37	57	60	87	106	100	119	94	279	189	1,202

제주 체육 진흥을 위한 제언

글 정구철 체육학 박사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스포츠 발전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독특한 특징을 갖춘 특별한 지역이다. 수려한 자연환경이 제주관광의 마중물이 되어 관광산업을 발전시켰고 이제는 제주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반이 되어 있다.

제주의 물리적 환경에 기대어 발전해온 관광산업의 시들해질 때 스포츠 분야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즐기는 관광(레저스포츠), 올레걷기와 같은 건강을 증진시키는 관광분야로 트렌드를 주도했다. 이렇듯 스포츠가 제주의 생명산업인 관광산업 전체를 견인하는 의미있는 분야가 된 지 오래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스포츠 정책은 제주도 행정 수장(도지사)이 바뀔 때마다 스포츠 관련 정책들도 발전과 정체를 반복해오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 해왔다. 그나마 현재 수준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2002년 FIFA월드컵이 계기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지난 몇 년 동안은 세기적 대 환란기인 코로나 유행이 원인이 되기도 했었으나 정체가 아닌 후퇴되었던 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스포츠가 통합되어 본격적인 스포츠 정책이 주민 복지와 경제 활성화 사회 인프라 시설 확충등과 함께 제주도에 맞는 제주도에 어울리는 제주도만이 스포츠

프로그램과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는 적기를 맞이했었으나 이를 위한 스포츠계 자체에서의 정책 구상이나 전략이 전혀 없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를 리드함을 기대하기 어렵고 여타 도시들의 발전 템포를 따라가기 급급한 모양새다. 당연히 행정에서도 현 상태 유지가 최선으로 여기는듯하다. 거듭 강조해왔지만, 스포츠는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일으키는데 특별한 매력에 있다. 나찌 독일 이후 스포츠는 정치적 우파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으나 스포츠에 내포되어있는 특성은 정치적 이용에도 유리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스포츠와 정치의 관계는 여전히 많은 국가들과 정치인들이 애용하는 수단이지만 부정적 방향이 아닌 긍정적 이용은 도시와 국가 발전에 매우 유용하다.

여기서 스포츠의 특성이 어떻게 사회 발전에 유익한지를 살펴보자.

첫째, 스포츠는 주민 복지에 크게 유용하다. 생활 스포츠가 이미 생활화된 선진국가들은 주민 건강을 위해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스포츠 활동을 생활화할 때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유익하다.

둘째, 스포츠는 사회성을 기르고 건강하게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특히 타인과의 건강한 경쟁을 통하여 자기표현과 힘의 서열을 결정할 수도 있다.

셋째, 지역 홍보에 매우 유용하다.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들은 주로 도시를 상징하는 프로 스포츠팀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의 맨체스터, 토트넘, 첼시, 파리,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나폴리, 뮌헨, 로마 등 수많은 대도시들이 도시를 상징하는 여러 개의 스포츠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특히 축구팀들은 이미 도시의 브랜드가 되어있고 지역 사회 경제를 리드하는 수준이다.



사진 : 김지호-한국관광공사



넷째, Mega-Sports, 즉, 올림픽 게임, 월드컵 축구대회, 아시안 게임, 마라톤 경기만도 런던 마라톤, 뉴욕마라톤, 파리마라톤, 베를린마라톤 등과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들은 사회 간접시설(도로, 교통, 방송, 환경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된다. 도시발전을 크게 리드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 참고로 올림픽 대회나 아시안 게임등은 도시가 주최하게 되어 그 명칭은 역사에 길이 남게 된다. 실제로 88서울 올림픽을 들수 있으며 FIFA월드컵 대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2002 한.일 월드컵이 한 예이다.

다섯째, 스포츠를 통해 지역 연대감을 높이고 세대간, 성별, 빈부를 불문하고 통합시키는 효과가 있다.

여섯째, 스포츠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능이 있다, 일곱째로는 스포츠 시설 확충과 지역환경을 보존하는 기능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포츠는 여전히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발전 방향을 예견한 새로운 정책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 외에도 제주도에서 지향하는 사회 발전을 위해 스포츠의 어떤 기능을 극대화하고 지역발전에 유익을 가져올 것인지를 위에 제시한 아주 기본적인 특징들을 고려한 스포츠 정책들이 시행됨이 바람직하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정책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제주의 경우는 이미 2002년 FIFA월드컵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상당한 유익이 있었다. 지금은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한

시도가 절실한 때이다.

우선 제주도민 인구 구조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스포츠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며,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종목과 제주만이 강점이 있는 스포츠 종목을 선택하여 육성에 집중할 필요 있다. 이를 위해 크게 엘리트 스포츠 종목 중 경쟁력 있는 스포츠 선택이 필요하고 생활 스포츠중 지역민들과 외부인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스포츠 종목과 새롭게 발전하는 트렌드 스포츠 종목을 선택하여 육성할 때

여타 다른 종목들 발전도 동시에 견인하게 될 것이다. 지루했던 코로나 시련기가 끝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체되었던 스포츠 활동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건강과 스포츠 발전에 필요한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체육회를 비롯한

스포츠 단체와 행정에서는 머리를 맞대어 발전 방안과 육성책을 제시해야만 하는 것이 시대적 역할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언제나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NO

도의회는 지금

의정모니터
현장 속으로
특별위원회 탐방
의정 칼럼
드림 인터뷰
이달의 법률
연간 일정

W.

의정모니터

02.
10.

양영식 의원 지방정부 의정대상 '대상' 영예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선정

모범적 의정활동 높은 평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지난 10일 경남대학교에서 개최된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주관의 '2022년 지방정부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정부학회는 대상을 수상한 양영식 의원에게 탁월한 의정역량과 활발한 의정활동 성과로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밝혔다.

양영식 의원은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400회 현장방문을 기록했고 100%에 달하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률을 보였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제주 사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의 일환으로 조례 제·개정 대표발의 27건, 공동발의 220건에 달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양영식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성실히 입법활동에 임하고자 노력한 결과를 좋게 평가해주셨다. 앞으로도 제주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방정부 의정대상’은 2018년부터 (사)한국지방정부학회에서 주관해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02.
17.

제주도의회, 입법활동 성과 돋보여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서 단체 우수상

최우수상 이승아 의원,

우수상 강철남·정민구 의원 수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 성과가 두각을 나타냈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이 지난 17일 아주대학교 율곡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단체 부문 ‘우수상’, 개인부문 최우수상에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 우수상에 강철남(더불어민주당, 연동을)·정민구(더불어민주당, 삼도1·삼도2동) 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단체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는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이 발의했다. 지방의회가 보유 및 관리하는 각종 의정활동 정보에 관한 의회의 공개 의무와 도민 공개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지침을 마련한 전국 최초 조례다. 개인 부문 최우수상에 이름을 올린 이승아 의원의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한 제주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감축인 지 예산제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 교육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탄소중립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 부문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강철남 의원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에 관한 조례’는 의원 당선인에 대하여 임기 개시 전에 체계적인 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특히 전국 최초 조례로 동일 취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를 견인하는 등 모범정책의 전국 확산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정민구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 의료 지원 조례’는 질 높은 생애 말기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와 도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

도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말기 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호스피스 및 완화 의료 지원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경학 의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각종 조례를 발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기 위해 역량을 한데 모아 힘차게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지방의회 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03. 0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물류비 지원 중단 부당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임원

7일 김경학 의장과 면담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임원들 간 면담이 지난 7일 의장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면담에는 이민숙 회장과 양창호 부회장을 비롯한 제주지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시설장 8명이 참석, 물류비 지원 중단에 따른 부당함을 호소했다.

아가곶드래 대표인 이민숙 회장은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우리 역할”이라며 “지원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 물류비 지원까지 없어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장애인 복지 부분이 흔들릴 위기”라고 밝혔다.

양은심 길직업재활센터 대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힘이 막강하다”며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고민해주셨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대표 양창오 부회장은 “물류비가 삭감되면서 생산량을 줄여야 할지 고민”이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분명히 필요한 건 물류비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경학 의장은 “장애인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자립이다. 자립을 하려면 직업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하는데,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저를 비롯해 의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제도적 개선 등 최대한의 방안들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03. 08.

김시숙 지사에 항일독립운동가 서훈을

제주도의회 여성의원

3·8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서훈 촉구 입장문 발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여성의원들이 115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김시숙 지사의 항일 독립운동가 서훈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성의(더불어민주당, 화북동)·강하영(국민의힘, 비례대표)·고의숙(교육의원, 제주시중부)·김경미(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박두화(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경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승아(더불어민주당, 오라동)·원화자(국민의힘, 비례대표)·홍인숙(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 의원은 지난 8일 1층 도민카페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등의 여성 권리 향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날이기도 하다”며 “전 세계와 함께 우리 모두가 기념하는 이유는 세상의 절반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았던 오래된 역사가 있어왔기 때문이며, 그 관행은 지금도 곳곳에 뿌리 깊게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시숙 선생은 여성의 문맹퇴치 강습소인 여수원을 개원하는 데 앞장섰고, 조천에서 야학을 운영하다가 옥고를 치루기도 했다”며 “일본으로 건너가서는 어린 한국 여성근로자의 핍박에 항거하기 위해 재일여공보호회를 조직하고 신진회의 여성부장으로도 항일운동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또한 “항일독립운동가로서의 길을 당당히 걸었던 김시숙 선생이 독립운동가 서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한다”며 “우리는 항일의 길을 걸었던 민초의 삶을 찾아내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의 의원은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과 여성, 운동에 앞장서다 1933년 일본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한 제주 여성 김시숙 지사의 삶을 재조명하고, 독립운동가로 추서될 수 있도록 여성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03. 13.

전국 시도의회 의장 공동현안 해결 방안 논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 제주서 열려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관심 당부

지역소멸대응특위 규정 제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2차 임시회가 제주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는 지난 13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시도의회 공동현안 사항 해결과 자치분권 실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이번 임시회는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의 안건 사전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거친 후 개회식이 진행됐으며, 이후 본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 △농어촌·도시 지역 등 대중교통 운영비 국비 지원 건의안 △지역 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 제정안 등이 상정됐다.

김경학 의장은 “지방 의회의 역할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를 충실히 하고 지방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조례, 규칙 등으로 흩어져 있는 지방의회 관련 규정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 실현과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향한 우리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 또한 “제주4·3이 75주년을 맞은 올해, 제주도민들이 화해와 상생으로 극복하여 대한민국 과거사 해결의 모범이 된 4·3의 정신이 확산돼 소중한 자산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며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전국 시도의회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교류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03. 27.

4·3 미래전승 과제는 정명(正名)

4·3특별위, 출범 30주년 기념

집담회 개최

2030 청년 활동가 참여...

미래 과제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 권, 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는 지난 27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2030 집담회, 4·3 미래를 말하다’를 개최했다.

4·3특별위원회 위원인 헌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이 좌장을 맡고 제주지역 4·3관련 활동 중인 2030청년 활동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미래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패널로는 강지연 제주4·3평화재단 어린이체험관 담당, 박경호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 양유석 제주4·3연구소 연구원, 양희주 제주여민회 사무국장, 오태양 제주대 총학생회 4·3연대사업국장, 이지현 제주도 4·3지원팀장, 현경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청년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4·3의 미래세대 전승을 위해서는 ‘정명’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박경호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은 “4·3의 미래세대 전승을 위해서는 4·3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4·3정명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희주 제주여민회 사무국장도 “단순히 ‘화해와 상생’의 강조는 다양한 접근과 해석을 한정시킬 수 있는바, 4·3의 진상규명에 있어 여성의 시각, 청년의 시각 등 다양한 주체와 입장에서 해석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4·3 정명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태양 제주대 총학생회 4·3연대사업국장은 “4·3의 전국화·세계화에 있어 4·3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4·3정명과 직결되는 영역”이라고 밝힌 한편 현경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청년위원장은 “최근 4·3왜곡 현수막 사건 등 여전히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있는 것이 안타까우며, 이는 궁극적으로 4·3정명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강지연 제주4·3평화재단 어린이체험관 담당은 4·3세대 전승을 위한 다양한 미디어콘텐츠 활용을, 양유석 제주4·3연구소 연구원은 4·3증언채록과 기록의 데이터베이스화 노력을, 이지현 제주도 4·3지원팀장은 청년활동가들과의 교류·연계를 통한 4·3정책의 확산 필요를 주문했다.

한편 4·3특별위원회는 출범 30주년을 맞아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월3일까지 기념주간으로 운영했다. 22일 4·3특별위원회 역대 위원장들이 모여 좌담회가 진행됐고, 29일에는 롯데시네마 아라점에서 4·3유족을 초청한 가운데 영화 ‘돌들이 말할 때까지’가 상영되는 등 기념행사가 이어졌다.



03.
27.

예산결산특별위, 타지역 교류 협력 추진

27~28일 광주·보성군 방문
지방재정운용 사항 등 공유
고향사랑기부 방법 모색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 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는 지난 3월 27~28일 타시도 의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정역량 강화와 고향사랑기부 홍보를 위해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 보성군을 방문했다.

방문 첫날인 27일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지방의회 역할 증진, 상호 교류·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및 2022년 결산 심사를 대비해 재정 현황을 공유하고,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의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지방의회 예산·결산심사의 역할과 의의'에 대한 주제로 의정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 지방의회 예산·심사 제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 현황에 대해 전문가 강의를 청취했다.

28일에는 전라남도 보성군을 방문해 다가오는 예·결산 심사 시기를 맞아 지방재정운용의 전반적인 사항 및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운영현황과 우수사례 의견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고향사랑기부 방법 모색에 나서는 등 상호 교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양경호 위원장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선진사례를 공유해 향후 예산 심사에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이뤄내겠다”며 “다가오는 추경 심사에서는 도민경제 활성화에 맞춰 예산이 형평성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주안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 속으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월평초·중학교’ 설립 예정 부지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는 지난 3월 6일 2023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안건 심사에 앞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위치한 가칭 ‘월평초·중학교’ 설립 예정 부지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학교 설립 예정 부지 현장에서 학교 설립계획 및 향후 추진 일정을 청취했다. 또한 현장을 돌아본 후 학생통학로와 학생 배치, 시설 배치 등 향후 추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김창식 위원장은 “오늘 현장 방문은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학교 신설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제주에서 최초로 초·중 통합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만큼 계획단계에서부터 세밀한 점검을 해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ی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칭 ‘월평초·중학교’ 설립 사업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와 아라동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38학급을 완성학급으로 해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초·중 통합학교로 신설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제주 첫 블랙박스형 공연장 ‘Be IN:(비인)’ 방문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오라동)는 지난 3월 7일 제413회 임시회 업무보고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점검을 위해 제주 첫 블랙박스형 공연장 ‘Be IN:(비인)’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현장을 방문했다.

‘Be IN:(비인)’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비와 장비구축 등 총 116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했으며 올해 상반기에 은영근거를 마련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경우 민선8기 제주도정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 상임위가 기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로 변경된 후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 업무보고 이후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승아 위원장은 “블랙박스형 공연장인 ‘Be IN:(비인)’의 조성으로 객석과 무대가 구분 없이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고 연출의도에 따라 융복합공연이 가능한 공간이 마련됐다”며 “공연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평생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며 “앞으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초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시대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도민들의 평생교육과 장학진흥사업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민관협력의원·약국 개원 준비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는 지난 2월 27일 제413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장방문에 나섰다.

이날 방문한 현장은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설립 부지와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시 365민관협력의원·약국이다.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는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것으로 사업 계획 단계에서 장애인부모회 등 이용예정자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반영토록 했다. 내년 완공을 예정으로 재활치료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강화 사업을 위해 운영되는 곳으로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권익보호,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펼친다. 또한 서귀포시 365민관협력의원·약국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들어선 것으로 365일 진료를 계획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각 사업의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청취했다. 또한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에 따른 의사·약사 모집 등 개원 준비를 점검하는 한편 개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연동읍)는 지난 2월6일 옛 탐라대 부지를 방문해 현장에서 부지 활용방안 기본 구상에 대해 제주도의 설명을 청취하는 등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앞서 제주도가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기본 구상’을 밝힘에 따라 제주도의 부지 활용방안이 적정하게 구상됐는지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기본 구상’에는 신산업 유망기업을 육성·유치하고, 핵심 기술 연구단지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옛 탐라대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계획 수립에 앞서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조기에 실현되고,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옛 탐라대 부지는 약 32만㎡ 규모로 지난 1994년 하원마을회가 대학 유치를 위해 제공한 이후 1997년 탐라대의 전신 동원산업대가 개교했고, 이듬해 탐라대로 이름을 바꿨다. 2010년 부실대학으로 지정, 2011년에는 폐교가 결정됐다. 제주도가 대학 정상화를 위해 2016년 매입한 이후 그동안 해당 부지에 외국대학 유치를 추진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농작물 피해 농업인 위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비례대표, 표선면)는 지난 1월 27일 지속된 한파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제주시 구좌읍과 성산읍 피해 현장을 찾았다. 이날 방문한 위원들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농작물 피해 접수·확인에 여념이 없는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대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 신고를 못 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며,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한 행정의 다각적인 지원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기상의존도가 높은 1차 산업의 특성상 재해보험 등의 안전장치를 강화해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조속히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미래를 위한 고도관리 방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는 지난 3월 2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연구원과 공동으로 ‘제주 미래를 위한 고도관리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지역 인구 증가, 개발 수요 증가로 인한 난개발의 해소와 더불어 포스트코로나 미래도시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동림피엔디 한승철 이사가 ‘서울시 고도지구 지정현황 및 관리방향’, 제주연구원 이성용 선임연구원의 ‘제주지역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한 고도관리 방안’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송창권 위원장을 좌장으로 양영준 제주대 교수, 하창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주지회 회장, 고용현 한국도시설계학회 제주지회장, 홍명한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송창권 위원장은 “현재 고도지구를 돌아보고 미래 도시를 위한 고도관리 방안을 고민할 때가 됐다”며 “제주의 고도지구는 고도지구 본래 목적에 부합되게 활용됐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고, 도정에서 추진 중인 15분 도시와 부합되는 고도관리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제주형 계절근로사업 해법 ‘현장’서 모색

제주형 계절근로사업 도입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현장에서 그 해법을 찾기 위해 타 지역 방문에 나섰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지난 14일 제주도 농업인력 담당자, 구좌농협 관계자들과 함께 충남 부여군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를 직접 방문, 공공형 계절근로자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장·단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충남 부여군은 지난해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도입, 필리핀 코르도바시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45명의 계절근로자를 고용, 안정적 운영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동수 의원은 “부여군에 와보니 외국 지자체와의 협약 내용뿐만 아니라 인력관리와 운용에 있어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농업 인력 부족상황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도의 지원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경학 의장은 “외국인 인력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숙박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현장에 와보니 인력을 운용하는 지역 농협에서는 그 한계가 있을 것이라 느꼈다”며 “농업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숙박시설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지역에 적합한 외국인 농업인력 지원사업 모델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재일제주인 보은사업, 적극 도울 것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방문단이 코로나 19로 중단됐다 3년 만에 재개한 재일본제주도민협회 신년인사회를 찾았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일본 방문단은 먼저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열린 관동도민협회(회장 양일훈) 신년인사회에 이어 29일에는 오사카로 이동해 관서도민협회(회장 양철사)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일본 방문단은 고향 사랑 실천을 위해 어려운 삶 속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제주를 지원했던 재일제주인 1세대에 고마움을 표하고, 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히는 한편 4·3희생자 추가 신고 접수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경학 의장은 신년인사회에서 “재일본제주도민협회의 애항심과 헌신의 시절을 결코 잊지 않고, 도에서 추진하는 재일제주인 공헌에 대한 보은 사업을 도와 제주인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나가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일본 방문에서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오사카부(단장 이원철)과 재일제주인 1세대 노인요양시설 ‘산보람’(이사장 고경일)에서 재일제주인과의 만남도 이뤄졌다.

김경학 의장은 “어려운 시절 제주를 위해 도움 주신 은혜는 잊지 않겠다”며 “의회 차원에서 재일제주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하여 4·3특별위원회



4·3피해신고접수처 현판식(1996. 1. 17.)



제주4·3 해결 촉구를 위한 전국 홍보 및 국회방문단 출정식(1999. 4. 4.)

30년 전 1993년 3월, 그때까지만 해도 4·3이라는 말 자체가 금기시되던 때에 제주도의회는 4·3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4·3문제를 정책 의제로 공식화했다. 4·3 발발 45년만의 일이고, 공식기관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4·3피해신고실을 설치하고 조사요원을 뒤 직접 피해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4·3의 진실 규명을 위해 첫발을 내디뎠던 4·3특별위원회가 올해로 출범 30주년을 맞이했다.

피해신고를 정리한 '제주도4·3피해조사 1차 보고서'(1995. 5) 발간에서부터 「제주4·3특별법」 제정 및 전부 개정, 제주4·3 수형인 재심 무죄판결을 통한 명예회복, 4·3희생자 및 유족 보상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4·3특별위원회가 도민과 함께 걸어온 길은 지난 역사를 바르게 고쳐 쓰는 길이자 정의로운 새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다.

어느덧 출범 30주년을 맞이한 4·3특별위원회의 기념식 준비로 한창인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을 만나 4·3특별위원회의 활동 내용과 향후 일정 등에 관해 물었다.

4·3특별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위원회 위원 구성, 활동기간 등 위원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2022년 7월 21일 구성되어, 앞으로 2년간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총 9명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박두화 부위원장님, 강봉직 의원님, 강하영 의원님, 고의숙

의원님, 박호형 의원님, 정이운 의원님, 현기종 의원님, 현길호 의원님입니다. 4·3특별위원회는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과거와 관련해서, 4·3의 정명 문제에 관한 것으로 4·3 보상금 지급 관련 보완 입법 대응, 수형인 명예회복, 미국의 책임 규명 등이 포함되고요. 현재와 관련해서는 현재 남아 있는 4·3을 보전하는 것과 관련되는데, 4·3 유적지 정비,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지원 등의 업무를 계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와 관련해서 4·3의 평화적 교훈이 세대 간 전승은 물론 국제사회 내에서 평가되어야 하기에, 4·3 교육 체계 정비와 전국화 및 세계화를 위한 교류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7월, 12대 도의회가 새롭게 열리면서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으로서 책임감과 소감도 남다르셨을 텐데요.

4·3특별위원회는 4·3을 쉽게 말하기 어려웠을 때부터 4·3 해결을 위해 막중한 역할을 해왔던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렇기에 4·3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첫 번째의 공공기관이자, 첫 번째의 공식기구로 평가받고 있으며, 4·3유족뿐만 아니라 도민들께서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4·3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또, 그동안 역임하신 위원장님들 중 가장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그렇기에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새로운 시각과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

올해로 4·3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난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인데요. 4·3특별위원회의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또는 가장 중점 두고 있는 현안은 무엇인가요?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과 보상금 지급 절차의 원활한 진행입니다. 최근에 4·3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친생자(親生子) 관련 정정 등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유족 대상 홍보 및 사실관계 확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현안은 4·3의 정명 찾기와 그와 관련된 국제적 해결 및 세대 전승이라고 봅니다. 특히 4·3의 국제적 해결은 의회이기에 먼저 나설 수 있다고 보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하여 소명 의식을 갖고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보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맡으신 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아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의 성과나 위원회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4·3정담회(思·淸情談會)라는 이름 아래서 도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숫자 4는 한자로, 생각할 사(思)를, 숫자 3은 한글로 삼 자를 붙여서, 정답게 이야기 나눈다는 의미로, 명칭을 따로 붙였습니다. 이 의미는 4·3을 생각하고, 정명, 또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있어 4·3희생자와 유족의 삶, 그리고 미래세대의 삶을 생각하는 세대전승을 고민해보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두 번의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4·3의 진실을 채우고, 정의로운 해결 과정을 함께 해나갈 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져 나갈 계획입니다.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식 행사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기념식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거나 행사 진행을 위해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1993년 3월 20일 제4대 제주도의회에서 4·3특별위원회가 처음으로 출범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성과 등을

4·3특별위원회 활동 일지

도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2023년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15일간을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제주 4·3 서른 해의 봄, 진실의 꽃 피다’라는 주제로 4·3특별위원회 활동 전시회, 역대 4·3특별위원회 위원장 좌담회, 4·3 청년 활동가와 함께하는 2030 집담회, 4·3영화 상영회를 준비했습니다. 상세 행사계획 등은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으로, 도민분들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4·3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각오와 더불어 도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4·3교과서, 4·3중앙위원회 문제 등 2023년 출발이 밝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4·3특위가 활동한 지난 30년을 돌이켜 보면, 이러한 어려움이 없었던 적은 드물었습니다. 4·3생존희생자, 유족분들은 물론이고 제주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 길을 걸어 나갔기에, 지금의 성취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을 지속시켜 나가고, 또 어렵다고 하여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계획한 것들을 꼭 실현해 결과물로 평가받는 진정성 있는 4·3특위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주4·3은 생명으로 평화입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주도제4대의회
 의장 장정언

지방자치 부활로 새롭게 개원한 제4대 제주도의회 초대 의장이자
 4·3특별위원회 출범의 초석을 다진
 장정언 전 의장의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 축하 메시지

- 1993. 3. 제4대 의회 4·3특별위원회 구성
- 1993. 6. 제주출신 국회의원, 시군의회 의장과와의 간담회
- 1993. 11. 국회 4·3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청원서 제출
- 1994. 2. 4·3피해신고실 개설 및 피해신고 접수 시작
- 1995. 5. 제주도4·3피해조사 1차 보고서 발간
- 1995. 5. '국회청원 조속해결 촉구 건의문' 및 1차 보고서 국회 전달
- 1995. 11. 제5대 의회 4·3특위 구성
- 1996. 3. 4·3알리기와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순례
- 1996. 11. 국회 4·3특위구성에 관한 청원서 전달
- 1997. 2. 제주도4·3피해조사보고서(수정·보완판) 발간
- 1998. 9. 제6대 의회 제1기 4·3특위구성(위원장 오만식, 간사 홍가운)
- 1999. 4. 제주4·3해결 촉구를 위한 전국홍보 및 국회 방문
- 1999. 9. 제2기 4·3특위 구성
- 1999. 12. 4·3특별법 제정촉구 국회방문
- 2000. 3. 제주도4·3피해조사보고서(2차 수정 보완판) 발간
- 2000. 11. 제3기 4·3특별위원회 구성
- 2001. 12. 제4기 4·3특위 구성
- 2002. 7. 제1기 4·3특별위원회 구성
- 2003. 7. 제2기 4·3특별위원회 구성
- 2003. 12. 4·3사건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 건의
- 2004. 7. 6.25전쟁사의 4·3사건 왜곡에 따른 건의문 채택
- 2004. 7. 제3기 4·3특별위원회
- 2005. 7. 제4기 4·3특위 구성
- 2008. 3. 도의회 소장 4·3자료, 도에 기증식
- 2009. 4. 4·3 특별위원회 구성
- 2009. 8. 새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 따른 관련 기관 방문
- 2016. 12. 제4·3특별위원회 구성
- 2017. 4. 4·3관련 배·보상 촉구 결의안 전달
- 2017. 6. 정책토론회: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 2017. 6. 4·3관련 배·보상 촉구결의안 채택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 2018. 9. 제11대 전반기 4·3특별위원회 구성
- 2019. 4. 4·3진상규명운동 국회 사진전
- 2019. 4. 4·3특별법 전부개정 및 여순특별법 제정 공동성명
- 2020. 9. 제11대 후반기 4·3특별위원회 구성
- 2020. 11.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피켓 릴레이 시위
- 2021. 2.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 2022. 7. 제12대 4·3특별위원회 구성
- 2022. 11.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추가신고 안내 일본 방문
- 2023. 1. 제1회 4·3정담회 '오늘의 기록, 미래를 열다' 개최
- 2023. 2. 제2회 4·3정담회 '4·3열린강연' 개최

공공요금 인상 그리고 제주도정의 역할



글 /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작년부터 이어진 가스요금의 인상은 올겨울 ‘난방비 폭탄’이 되어 우리 제주도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1월 제주도시가스 주택용 요금은 단위당 24.3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29.2% 상승하였다. 이 밖에도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잇따라 상승하며 도민이 체감하는 공공요금 부담은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주도는 올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의 공공요금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공공요금의 낮은 원가보상률은 향후 공공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재투자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특정 시점에서 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야기하거나, 또는 미래세대에 그 비용을 전가하게 된다. 지나치게 낮은 공공요금은 자원의 불필요한 소비와 과잉생산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공공요금의 적정성과 인상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가스나 전기요금의 인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동안 억제되었으나, 전 세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제주도 상수도 요금은 그간 상수도 사업의 만성적자 개선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공공요금의 인상은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인 도민의 가계부담이 되며, 공공재를 소비하는 지역산업에도 영향을 초래한다. 공공요금이 국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지금 제주도는 이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 도민의 살림꾼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이다.

정부는 올겨울 ‘난방비 폭탄’에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대응책을 내놓았고, 제주도는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가구 등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에 총 27억 원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키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책은 일회성이고 단편적인 것으로, 향후 공공요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 시키는 방안은 아니다.

이미 일부 공공요금 인상이 예견된바, 우선 제주도는 지역주민에게 미칠 앞으로의 영향을 객관적 통계지표로 평가하여 도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는 주민들이 공공요금 인상을 체감하고 스스로 불필요한 사용량을 줄이는 등 사전에 자율적 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에 공공요금 재화의 과소비를 줄이는 인센티브 정책을 확대하고 사전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나 누수 수도관 교체 사업과 같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 실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제주도민이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공 요금재를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축산악취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글 / 양용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 세상에 냄새나 악취를 100%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발명된다면,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에게는 노벨상을 수여해야 한다.”

고질적인 축산냄새에 관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때, 논의의 전제로 어김없이 이야기되는 단골멘트다. ‘냄새를 100% 제거하는 과학적 기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축산업 관련민원의 대다수가 악취민원이다보니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국가의 사육시설 규제들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축산농가의 준수사항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더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축산냄새는 같은 양이 배출된다고 하더라도 온도, 습도, 기압 등 지역의 기상조건이나 지역 여건, 개인의 후각 민감도에 따라 실제 체감 정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기준치 이하의 양이라고 하더라도 민원은 발생할 수 있으며,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한 억울한 축산농가는 생기기 마련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방관 속에서 주민과 축산농가가 공존의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안없는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

국가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 자원화와 적정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규정하고 있다. 축산업자의 책무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다양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실상은 악취 저감문제 해결의 의무와 책임을 오로지 농가의 몫으로 감당하게 하고 있는 구조다. 악취 저감의 노력과 과정에 대한 평가없이 결과만을 가지고 회초리 규제에 익숙하다보니, 그 과정에서 억울한 축산농가의 규제 형평에 대한 불만을 사기도 한다.

그렇다면 축산악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해답은 현장에 있고, 정부·지자체·축산농가의 적극적 역할과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서 찾아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가축분뇨의 처리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환경오염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규제과정에서 축산농가가 냄새저감을 위해 어떤 수준의 현대화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현장의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이 필요하다. 정부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측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냄새저감 방안에 대한 연구개발이나 적용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 시범 도입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무엇보다 밀집사육시설에 대해서는 ‘마을단위’로 전체 농가가 참여하는 시설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개별농가’ 단위의 단편적, 파편적 방식은 ‘밀빠진 독에 물붓기’의 우(愚)를 범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축산농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 축산농가 간의 책무와 역할을 조정하고,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 악취와 냄새는 100%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지만, ‘축산악취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

대통령 안의 '카르텔'



글 / 현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카르텔(Kartell)’의 사전적 의미는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이익의 증대를 노리고 자유 경쟁을 피하기 위한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되는 시장 독점의 연합 형태로 경제 용어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의 발언 “태양광 비리는 이권 카르텔”, “국민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 맞서 개혁 실천해야”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카르텔이라는 단어는 주로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다.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메데인 카르텔 예에서 보듯이 카르텔이든 그 무엇이든 국민에게 불편과 손해를 초래한다면 그것은 개혁하고 혁파해야 할 대상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대상과 우선순위를 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우리나라의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다. 전 국민이 다 아는 말이다. 관피아가 없어졌는가? 관피아로 인한 민관 유착은 고질적인 사회 문제의 하나다. 그런데도 고위 경제·금융 관료 출신인 모피아, 국토건설부 출신 건피아, 교육부 출신 교피아, 해수부 출신 해피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관피아는 지금도 확장하고 있다. 이들이 카르텔이다.


대통령 친정인 검찰은 또 어떤가.

현 정부의 인사 라인인 모두 검찰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인사를 추천하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인사비서관, 검증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이끄는 한 장관까지 모두 검찰 출신이다.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장차관급만 13명이다. 이뿐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국민연금 등 전문성이 필요한 곳에까지 검찰 출신들이 20여 개 기관에 70여 명이나 들어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 10여 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정도라면 앞으로 4년여 동안 대통령실과 정부는 물론 산하기관의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이 얼마나 진출할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카르텔이라고 다 같은 카르텔이겠는가. 이쯤은 되어야 카르텔 아닌가.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리스 7현인의 한 사람이며 아테네의 유명한 입법자인 솔론은 자신이 만드는 법에 대해,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이롭다는 것을 명백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알맞은 법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나카르시스라는 인물이 반박한다.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그 그물에 걸릴 만한 나약하고 가냘픈 이들만 붙잡고, 부와 권세가 있는 자들의 손아귀에서는 갈가리 찢길 것이라고.

요즘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인 대통령이 바로 고대 그리스에서 아나카르시스라는 인물이 우려했던 그 일을 만만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진짜 카르텔은 못 본 체하면서 말이다. 조폭을 잡겠다면 정작 전국구 조폭은 잡지 않고 읍면에 있는 ‘논두렁 깡패’만 두들겨 패면 누가 수궁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지, 불통, 독선, 독단으로 구성된 자신의 내부에 도사린 카르텔을 해체하는 것이다. 



최초라는 수식보다 최선을 다한 공직자로 남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애숙 사무처장

글 / 사진 편집부

지난 1월 도의회에는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다.
 제주 최초 여성 이사관 승진이자 제주 최초 여성 의회사무처장에 취임한
 김애숙 사무처장의 소식이 그것이다.
 제주 공직사회에 새롭고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올 만한 반가운 승진 임용 소식이었다.
 2023년을 맞아 도의회 소식지 『드림제주』의 신규 코너 <드림 인터뷰>가 만난
 첫 주인공 김애숙 사무처장의 인터뷰를 위해 방문한 집무실에는
 취재진을 반갑게 맞아주는
 김애숙 사무처장의 온화한 미소가 가득 번졌다.



도내 첫 여성 이사관 승진과 더불어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소감 부탁드립니다.

도정 이래 첫 여성 이사관 첫 여성
 의회사무처장이라는 단어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후배들을
 위해서도 처음으로 가는 길 잘 걸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첫발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공직자로서
 높은 길 보다는 옳은 길을 향해 바르게 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84년부터 올해로 공직생활이 40년째입니다.
 처음 공직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40년 전 첫
 출근하시던 날, 어떤 마음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벌써 40년이 되었네요. 40년 전 첫 출근길이
 엇그제의 일처럼 생생하기만 한데 시간의
 흐름에 새삼 놀랍고 그 첫 출근날부터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지난날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워지네요. 그날을 돌아보면 여느
 사회초년생처럼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씩씩하게
 출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든지 나에게 주어진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일을 성실하게 하자.’라는 다짐과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호기심을 담고 공직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스물셋 나이에 시작한 공무원 생활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조천에서 첫 직장인 서귀포 중문동사무소까지 가려면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야 했지만, 서귀포의 낭만적인 정취 때문인지, 초년 공직생활의 재미 때문인지 중문까지의 출퇴근 여정이 결코 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공무원인 친구 오빠가 가져온 두 장의 지원서에서 시작되었어요. 여동생에게 공직을 권유하려고 가져온 두 장의 지원서 중 하나를 친구가 저에게 내밀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네요. 친구 따라 강남 가듯 우연한 기회로 친구와 함께 지원했고,

다행히 그 친구와 나란히 손잡고 합격하여 공직에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의회 최초 여성 사무처장’이자 ‘제주도 최초 여성 이사관 탄생’ 등 최초라는 수식어가 앞으로도 계속되실 텐데요. 지금이 있기까지 사무처장님께 힘을 부여해준 나름의 특별한 소신과 목표가 있으셨는지요.

평상시 생각지도 못했던 수식어를 저의 이름 앞에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최초 여성 이사관’과 ‘최초 여성 의회사무처장’이라는 이름 아래 지역사회와 주변 분들에게 많은 축하와 응원을 아낌없이 받았습니다. 성원과 지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과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격려를 아끼지 않고 주신 분들에 의해 많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창한 철학 같은 것보다는 나름의 저가 가진 소신은 공직자로서 단순하고 기본적인 자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말단 공무원에서 시작하여 오늘날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제가 가진 변함없는 마음이고 자세입니다.

그동안의 공직생활 중 느끼신 점, 특히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본 공직사회가 변화해 나가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되돌아 생각해보면 공직생활은 그리 녹록지 않았고 지금도 녹록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때론 수직적이고 경직된 공직 분위기와 반복되는 행정 업무가 회의를 느낄 때도 있었지만, “고맙다.”라는 민원인의 한마디에 공직에 대한 보람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일하는 업(業)에 대한 자부심도 크게 느낍니다. 특히 여성 공직자로서 시대 흐름에 발맞춰 빠르게 변해가는 공직사회에서 변화의 물결을 매년 경험해왔습니다. 그 변화의 물결은 여성 공직자가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물꼬를 트여주는 역할을 하였고 조금씩 개선되었습니다.

저 또한 여성의 공직 진출이 활발해지는 공직문화를 바라보면서 보람과 함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나 공직사회는 그 사회가 속한 시대정신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공무원 모두가 직장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와 함께 말단 공무원에서부터 소위 고위 공무원까지 공직 가치를 높게 가질 수 있는 환경으로 더 한발 나가길 바랍니다.

절대 쉽지 않은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어찌 보면 도내 여성 공직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졌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후배 여성 공직자들에게 좋은 선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성 공직자를 넘어 모든 후배 공직자에게 특별히 전하실 말씀이 있는가요?

네, 제가 여성 후배들의 좋은 선례가 된다면 저 또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무게를 책임감 있게 잘 견뎌보겠습니다. 남녀 여부를 떠나, 후배 공직자들을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세대보다 더 낮고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은 바쁜 일상의 이유로 정작 자신을 돌아볼 시간과 선배와 후배, 동료들과 소통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습니다. 후배 공직자들은 때론 과중한 업무로 바쁘더라도 짬짬이 동료들과 밀도 있는 소통의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 축적의 시간은 언젠가 개인과 조직에 큰 힘으로 발휘될 것입니다.

의회 사무처의 행정 업무와 살림살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챙기셔야 할 부분도 많으실 텐데요. 사무처장 취임 후 가장 중점에 두고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중에 의회의 특성상, 의원 45명이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잘해야 합니다. 직원과 의원들과 더불어 직원과 직원들 간의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구현하면서 올곧게 공직에 전념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민 여러분께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으로서의 앞으로의 포부와 전하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간 공직생활을 하며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흘트림 없이 공직을 마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도민을 위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자그마한 희망이 있다면 먼 훗날에도 “최초의 여성 의회사무처장 그리고 공직생활에 진심이었던 사람이 김애숙이다.”라고 회자 될 때 좋은 기억이 함께 소환되는 의회 사무처장이 되고 싶습니다. 🍀



알기 쉬운 생활법률



Q 부모님의 여행사 사업을 위해 여행사 홈페이지에 여행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 올렸는데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단순히 가게 홍보를 위해 올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상대방이 민·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처벌 받게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이어야 하고, 사진을 올린 사람이 저작물을 허락을 받지 않고 올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 및 저작물이란?

- “저작권”이란 시,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물”이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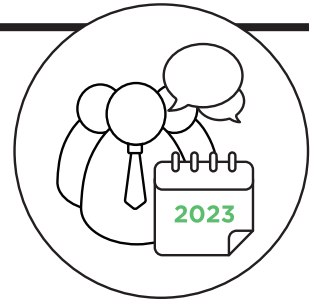
-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등과 같은 촬영방법과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 비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당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가게의 운영을 위해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규정

- 저작권을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배포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거나 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을 일부러 또는 실수로라도 침해한 사람에게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일정



2-3 제413회 임시회 FEB.-MAR. 2.24.(금)~3.8.(수) / 13일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본회의 2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상임위 6일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공휴일 5일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3 제414회 임시회 MAR. 3.29.(수) / 1일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본회의 1일	• 안건처리

4 제415회 임시회 APR. 4.10.(월)~4.21.(금) / 12일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본회의 7일	• 도정·교육행정 질문
상임위 3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공휴일 2일	• 현장방문 등

5 제416회 임시회 MAY 5.16.(화)~5.26.(금) / 11일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본회의 2일	• 제1회 추경예산안
상임위 4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예결위 3일	• 현장방문 등
공휴일 2일	

6 제417회 제1차 정례회 JUN. 6.13.(화)~6.28.(수) / 16일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본회의 2일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상임위 5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예결위 5일	• 현장방문 등
공휴일 4일	

7 제418회 임시회 JUL. 7.11.(화)~7.18.(화) / 8일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본회의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상임위 4일	• 현장방문 등
공휴일 2일	

9 제419회 임시회 SEP. 9.8.(금)~9.22.(금) / 15일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본회의 7일	• 도정·교육행정 질문
상임위 4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공휴일 4일	• 현장방문 등

10 제420회 임시회 OCT. 10.10.(화)~10.31.(화) / 22일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본회의 2일	•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14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공휴일 6일	• 현장방문 등

11-12 제421회 제2차 정례회 NOV.-DEC. 11.14.(화)~12.6.(수) / 23일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본회의 2일	• 2024년도 예산안
상임위 7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예결위 8일	• 현장방문 등
공휴일 6일	

12 제422회 임시회 DEC. 12.11.(월)~12.15.(금) / 5일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본회의 2일	• 제2회 추경예산안
상임위 1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예결위 2일	• 현장방문 등

계 10 회 126 일

의사일정	총 126일
본회의 29일	• 정례회 2회 / 39일
상임위 48일	• 임시회 8회 / 87일
예결위 18일	
공휴일 31일	



한라산성애 거른다

알기나 할까 유채꽃 날리는 봄을 삼별초와 김통정은

글\사진 김형훈 미디어 제주 편집국장



건게 될 때 누리는 자유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그러려면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장자크 루소마냥 고민하게 되면
‘몽상’에 휩싸이고 만다. 루소는 산책하며 머리를 스쳐
간 온갖 생각을 종이에 옮겼는데, 그는 “몽상을 충실하게
기록했다.”며 스스로 위안했다. 루소니까 그게 가능했지,
나 같은 평범한 사내에게 ‘몽상’은 곧 짐이 된다. 그래도
루소마냥 해볼까? 의지가 발동한다. 루소도 몽상을
즐기며 기록했다는데, 못할 건 없지 않은가.
몽상하러 찾은 곳은 향파두성(향파두리성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향파두성으로 쓴다)이다. 삼별초의
기역을 지닌 향몽유적지가 곧 향파두성이다. 우리나라는
성(城)의 나라인데, 향파두성은 제주에서 흔히
만나는 형태의 성은 아니다. 그건 그렇고, 향파두성의

‘향’이라는 글자와 ‘파’라는 글자에 귀가 쏠린다.
향몽유적지여서인지, 맞서 싸웠다는 의지가 향파에 담겨
흐른다. 사실은 그러지 않은데 말이다.

향몽유적지가 있는 마을은 고성리로, 이름에서 옛성이
있었다는 의미를 읽는다. 이 지역 사람들은 향아리
모양을 닮은 언덕에 있는 땅이어서 ‘향파두리’라는
이름을 붙였다는데, 그것도 사실인지는 알기 힘들다.
이미 ‘향파’는 《고려사》에 등장한다. 개경 환도에
반대하며 배중손 등이 항전을 시작할 때, ‘향파강’이
있었다. 그 이름을 김통정이 제주에 가져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쯤 되면 루소의 몽상이 발동된다.
왜 강화도에도 향파가 있고, 제주도에도 향파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몽상을.





김통정 장군은 삼별초군의 거점지인 향파두리에 흙을 이용하여 토성을 쌓아 여몽연합군과 대항하였다.

한쪽은 관군 편, 한쪽은 삼별초 편

삼별초 항전은 바라보는 이들에 따라 엇갈린다. 대부분은 삼별초를 향해 민족주의라는 정통성을 입힌다. 몽골이라는 대제국과 맞선 항전의 역사를 자랑삼아 이야기하려면 응당 민족주의가 빠져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은 부류로는 재야사학자 이이화가 있다. 그는 삼별초라는 존재 자체가 무신정권의 하수인이었고, 그들의 투쟁은 실익이 없었다고 비판한다. 사실은 이쪽저쪽 다 맞는 말이다. 삼별초는 무신정권의 그늘에서 살아온 이들로써 비판의 대상인데, 그들이 끝까지 몽골에 맞서 싸웠다는 역사적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들의 양면성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지금의 관점이 아닌, 당대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탐라 사람들은 삼별초를 어떻게 받아들였을지가 더 궁금하다.

탐라 성주였던 고여림은 장수로서 삼별초와 대응하는 존재였다. 성주가 그랬다면, 삼별초는 탐라인들에겐 반가운

존재만은 아니었다. 삼별초에 대응하려고 환해장성을 쌓았다는 기사도 있는 걸 보면, 삼별초는 결코 쉬운 존재였다. 그럼에도 삼별초가 제주에 들어와서 2년 6개월을 버틴 점은 무얼 말하나? 삼별초를 옹호하는 세력도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쪽은 삼별초에 맞서 싸우고, 한쪽은 삼별초와 동화되어 고려 관군과 몽골에 저항하는 입장이라니.

삼별초 항전은 ‘항몽’이라는 글자에서 민족주의를 솟아나게 만드는데, 당대를 살던 사람들에게겐 겪어보지 못한 전쟁의 참화를 맛보는 일이다. 조용하게 살아왔는데, 대규모 전쟁을 벌이는 참화에 맞닥뜨린다면 어떤 기분일까. 그것도 편이 다르지 않은가. 어찌 보면 제주4·3과 같은 혼란을 탐라인들은 마주했으리라. 제주4·3은 무장대와 토벌대라는 기억을 지니는데, 항몽 당시 탐라사람들도 삼별초와 관군으로 나뉘서 대립했다. 다행인 점은 삼별초 패배 후 섬사람들에겐 큰 피해가 없었다. 《고려사》는 “원래

탐라에 거주하던 사람은 예전처럼 편하게 살도록 하였다.”고 기록하는데, 이때가 음력으로 1273년 4월 28일이다. 전쟁은 참혹을 부르기 마련인데, 탐라인들은 삼별초가 패하고 나서도 큰일을 당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누가 그 참혹을 막아줬는지 궁금하다. 고려 원종이 그랬을까? 그럴 입장은 아니었으리라. 고려는 몽골에서 원(元)으로 이름을 바꾼, 그들의 세력 밑에 있었기에 탐라인들의 생사여탈권은 원의 세조, 즉 쿠빌라이에게 있었다. 그가 “제주도민들을 모두 죽여!” 이런 결정을 내렸더라면, 제주도는 피의 섬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최적의 입지조건 향파두성, 그리고 김통정

성(城)이 제 기능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성 주변으로 적이 쉽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주는 조건이 있어야 하고, 적이 침입하더라도 오랜 기간 버틸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전자의 조건은 튼튼한 성곽과 아울러 성 주변을 둘러싼 구덩이인 해자를 필요로 한다. 후자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다.

향파두성은 모두를 갖췄다. 평지에 세운 성은 일부러 구덩이를 파서 해자를 만드는데, 향파두성은 그럴 이유가 없었다. 토성인 향파두성에 올라서면 멀리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적의 동태를 관찰하기에 더없이 좋은 자연조건이다. 거기에서 성 주변으로 천(川)이 흐른다. 향파두성 서쪽으로 소왕천, 동쪽으로 고성천이 바다를 향해 내달린다. 천연적인 요새이다. 오랜 기간 버티려면 물과 식량이 필요한데, 향파두성 인근은 물이 풍부하다. 제주의 땅은 화산회토여서 농사짓기에 어려움이 많은데, 향파두성 일대는 토질도 좋다. 어떻게 이런 곳에 등지를 틀 생각을 했을까. 사전에 정보를 지니고 있었던가? 강화도에서 물러난 뒤 진도에 정부를 세운 삼별초는 제주도를 배후지기로 이미 점찍었다. 1270년 겨울 제주에서 우위를 차지한 삼별초는 새로운 성을 지을 곳을 탐색하며 알아보지 않았을까. 김통정이 살아 있더라면 그에게 이같은 궁금증을 묻고 싶다.

삼별초 최후의 장수 김통정은 전설로 그려지는 인물이다. ‘야래자(夜來者)’ 설화의 인물이다.



▲▲ 장수물

김통정 장군이 관군에게 쫓기다가 토성 위에서 뛰어 내릴 때 바위에 발자국이 패여 그 곳에서 샘이 솟아나게 되었다는 전설이 깃든 곳이다. ©문화재청

▲ 살맞은 돌

극락봉에서 삼별초군이 궁술연마시 과녁으로 사용했던 거대한 입석(立石)으로, 암석 표면에 화살촉이 박혀 있었다고 한다. ©문화재청

밤마다 누군가 찾아와 동침을 한다. 그러곤 임신을 하고, 태어난 아이는 영웅이 된다. ‘야래자’ 설화의 기본 틀이다. ‘야래자’는 ‘밤에 온 사람’이라는 뜻인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다. 후백제의 견훤도 ‘야래자’인 지령이 사이에서 나왔다. 김통정도 그렇다.

영웅 탄생은 신비하게 묘사된다.
 김통정 전설의 비늘과 겨드랑이 날개
 역시 영웅을 묘사하는 키워드다.
 그러나 비늘은 언젠가는 틈을
 보이고, 영웅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전설은 김통정을 좋게만 그리고
 있을까, 아닐까. 두 가지 측면을
 지닌다. 전설은 토성을 만드는 혹독한 과정을 드러내며,
 토성을 만든 이후는 탐라사람들과 협력하며 지낸 장면이
 묘사된다. 김통정을 좋게도 보고, 나쁘게도 보고 있다.
 영웅은 영화의 주인공처럼 생존하지 못한다. 늘 아킬레스를
 지닌다.

북유럽의 신화 지크프리트(오페라 '니겔룽겐의 반지'의
 주인공이기도 하다.)가 용의 피를 온몸에 적시고도 나뉘었
 때문에 용의 피를 묻히지 못한 어깨로 비극을 맞듯,
 김통정도 온몸을 비늘로 감싸고도 틈새를 노출하는 바람에
 그의 생은 비극으로 마감된다.



항몽순의비

항파두리 토성길, 그리고 오키나와

항파두성은 토성을 주변으로 '항파두리
 토성길'을 만날 시간을 준다. 혼자도
 좋고, 연인과 함께여도 좋다. 주차장에
 내려 걷다 보면 '항몽순의비'를
 가리키는 방향과 '토성'을 가리키는
 화살표를 만난다. 머리를 비우고 걸을

사람이라면 '토성'을 추천한다. 루소처럼 몽상이 필요하다면
 '항몽순의비'가 낫겠다.

토성으로 진입하면 꽤 시간을 잡아야 한다. 중간에 되돌아올
 수도 있으나, 이왕 토성을 만끽한다면 다 둘러보기를 권한다.
 '토성'의 화살표 방향으로 가다 보면 나무 데크가 있고,
 그 데크는 토성 위까지 이어진다. 토성에 데크라니, 그건
 좀 아니지 싶다. 토성길을 걷는 이들을 위해 커다란
 안내도도 만들어뒀으니, 그걸 참조해도 좋다. 안내도에
 '나홀로나무'라는 글이 눈에 들어온다. 토성 데크에서
 서쪽으로 빙 돌면 만날 수 있다. 어떤 나무일까? 궁금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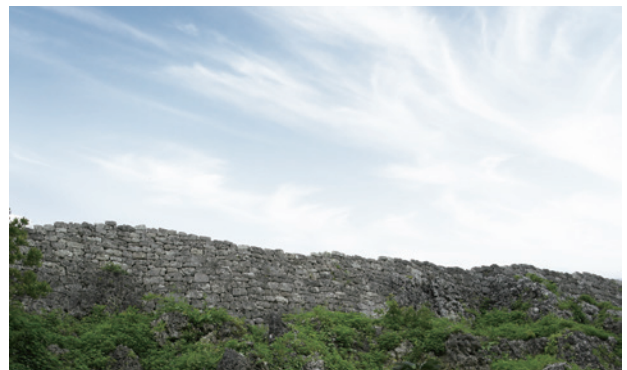


자아낸 그 나무는 토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솔방울 하나가 토성에 안착한 뒤 이렇게 커버렸구나. 삼별초. 애타는 이름이다. 몽상을 끝낼 시간이 다가온다.

아 참, 비밀 이야기가 더 있다. 김통정은 제주에서 죽었는데, 삼별초 잔여 세력들이 오키나와로 갔다는 소문이다. 소문은 '계유년고려와장조 (癸酉年高麗瓦匠造)'라고 쓰인 기와조각에서 유발되었다. 기와조각은 1955년 오키나와현 우라소에(浦添)에서 나왔다.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는데,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 몇몇 연구자들이 '계유년고려'를 주목했다. 연구자들은 삼별초가 완전 항복을 선언한 1273년이 계유년이고, 잔여 세력들이 오키나와로 흘러들어 수많은 성곽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장한철의 《표해록》에서 보듯, 표류를 하다가 오키나와로 가기도 한다. 삼별초 잔여 세력들이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다. 기와조각 하나가 모든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런 가설이라면 발해가 제주도의 유력인사였다는 이야기도 만들어낼 수 있다. 용담동 제사유적에서 나온 '금동허리띠 꾸미개'는 발해 유물로,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만 발굴된 귀한 물건이다. 만일 발해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국가라면 발해 고위관리가 제주에 정착해서 여차여차했다는 이야기를 지어낼 수도 있으니까.

역사는 가설로 만들어질 수 없다. 더 많은 자료 발굴과 고증이 뒤따라야 한다. 오키나와 가설이 하도 궁금하길래, 오키나와 현지인을 만났을 때 직접 묻기도 했다. 오키나와에서 활동하는 건축가 네로메 야쓰후미를 만난 건 2018년 여름이다. 나보다는 나이가 하나 위여서 '형'이라고 불러줬다. 그러면서 말을 트다가 오키나와 가설이 궁금해 삼별초 이야기를 던졌다. 그는 뭐라고 했을까. 이랬다. "하지메떼 기쿠(처음 듣는다)." 제주에서 온 동생에게 처음 들었던단다. 🍷



오키나와로 건너간 삼별초군이 성곽을 쌓는데 기여했을 것이라는 가설이 전해온다. 사진은 오키나와에 있는 타마구스쿠. '구스쿠'는 성(城)이라는 뜻이다.



거북이처럼 제주다움은 장수해야 한다

글 / 사진 김완병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이학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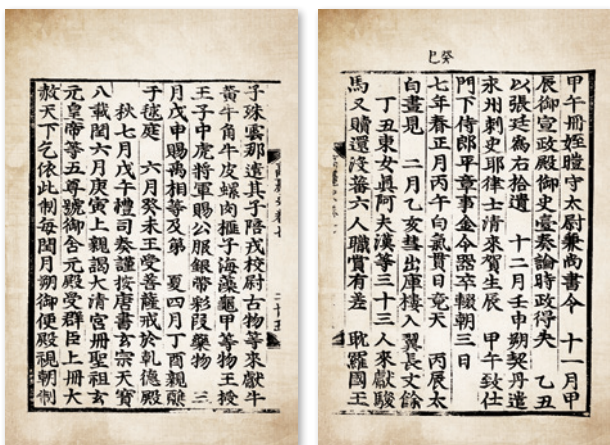
거북등대 /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

탐라사(耽羅史)를 펼치면, 970년 전 탐라국 왕자 수운나(殊雲那)는 고려 정부에 거북 껍데기를 비롯하여 우황, 쇠뿔, 쇠가죽, 나육, 비자, 해조류 등을 바친 기록이 나온다. 주목할 만한 물품 중 하나가 바로 거북이다. 예전에는 제주도 해안의 모래밭이 거북이 주요 산란 장소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동아시아 해역을 지나던 거북이들이 도내 연안을 따라 발달한 모래밭에 알을 낳았던 것이다. 탐라국 사람들은 이런 바다거북의 이동경로를 잘 알고 있었기에, 의외로 바다거북을 쉽게 잡았다.

〈高麗史〉世家 卷第7, 文宗 7年(1053年) 2月
 耽羅國王子殊雲那, 遣其子陪戎校尉古物等來,
 獻牛黃·牛角·牛皮·螺肉·榧子·海藻·龜甲等物,
 王授王子中虎將軍, 賜公服·銀帶·彩段·藥物.
 탐라국(耽羅國) 왕자 수운나(殊雲那)가 아들
 배웅교위(陪戎校尉) 고물(古物) 등을 보내어
 우황(牛黃), 우각(牛角), 우피(牛皮), 나육(螺肉),
 비자(榧子), 해조(海藻), 구갑(龜甲) 등 물품을 바치므로,
 왕이 〈탐라국〉 왕자에게 중호장군(中虎將軍)을
 제수(除授)하고 공복(公服), 은대(銀帶), 채단(彩段),
 약물(藥物)을 하사하였다.

출처 <https://db.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탐라사 기록 사진



붉은바다거북(좌)과 푸른바다거북(우).
 두 종 모두 등갑에 5개의 척추판이 있으며,
 척추판 양 옆으로 늑골판이 5쌍이면
 붉은바다거북이고, 4쌍이면 푸른바다거북이다.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거북은 폐호흡을 하는 파충류이며, 종에 따라 육상, 담수, 바다 등에서 산다. 국내에 보고된 바다거북류는 푸른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장수거북, 매부리바다거북, 올리브바다거북 등 5종이다. 푸른바다거북과 붉은바다거북은 태평양, 인도양, 아열대 해역에 널리 분포하며, 수명은 50년 이상으로 알려졌다. 과거 장거리 해양탐사단이 해상에서 장기간 조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수개월 동안 살아있는 거북이로 식량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거북이는 십장생(十長生)의 한 동물로, 재물운과 장수를 상징한다. 가정과 마을의 무사 안녕을 빌기 위해, 거북 박제품을 제작하거나 거북 형상 또는 거북 문양의 생활용품을 만들기도 했다. 특히 비석 받침돌인 거북 모양의 귀부는 죽은 사람의 영혼까지 오래도록 되새기도록 하였으며, 신라 제29대 태종무열왕릉비 귀부는 국보급으로 지정될 정도로 예술성이 뛰어나다. 제주 목사로 부임했던 제262대 양헌수 목사의 선정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상양공헌수영세불망비(使相梁公憲洙永世不忘碑)의 받침돌도 귀부 형상이다.



사상양공헌수영세불망비와 귀부
/ 제주목관아

거북은 ‘토끼와 거북이’ 동화를 비롯해 각국의 문화 상품으로 등장하며, 제주 신화에서는 바람과 비를 관장하는 용왕신으로 여겨졌다. 제주 사람들은 살아있는 거북이가 해안에 올라오면, 그 해는 해조류가 풍부하고 배가 만선이 될 징조라서 해서 거북이게 막걸리와 돼지고기를 대접하여 지극 정성으로 되돌려 보냈다. 또한 거북이와 인연이 있는 여러 전설이 전해지며, 그중 백중제의 전설은 이렇다.

옛날 차귀벵디에 백중이라는 목동이 살았는데, 하루는 바닷가에 나갔다가 우연히 옥황상제가 큰 거북이한테 하는 말을 엿듣게 되었다. 오늘날 큰비를 내리게 하고 강한 바람도 함께 불게 하라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들은 백중은 큰일이다 싶어 큰 거북을 부르고는 옥황상제 흉내를 내면서 바람은 놔두고 큰비만 내리도록 명한다. 아니나 다를까 큰바람 없이 비만 내리니 제주에서는 다행히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알고 화가 난 옥황상제가 백중을 벌하려고 하자, 스스로 바다에 빠져 목숨을 끊고 말았다. 이날을 기념해 제주에서는 목동을 위한 백중제(음력 7월 14일)를 지내기도 하고, 물의 효험을 얻고자 물맞이나 해수욕장으로 가는 풍습이 생겼다.

거북의 상징적 의미는 일부 고관대작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욕심으로 이어졌다. 전국에서 받치는 진상품 중에 제주에서 올라오는 거북등껍데기는 단연 으뜸이었다.

등껍데기는 비녀, 목걸이, 빗 등 장신구로 쓰일 정도로 귀한 재료였으며, 보석만큼이나 귀하게 여겼다. 하지만 거북은 아무 때나 볼 수 없을뿐더러, 살아있을 때 잡아야하기 때문에, 거북등껍데기를 구하는 일은 고역이었다. 거북을 바친 섬사람보다 거북등껍질이 더 귀한 대접을 받은 것이다.

바다거북은 육상의 모래밭에 알을 낳는다. 주로 밤에 올라와서 수십 개의 알을 한 구덩이에 놓고서 떠나버린다. 제주의 해변은 바다거북의 고향이었다. 연안을 따라 이호, 광지, 협재, 금능, 고산, 하모, 사계, 중문, 표선, 신양, 고성 (광치기), 하도, 세화, 한동, 월정, 김녕, 함덕, 삼양 해수욕장의 천 년 전 모습을 보면 어떨까. 거북이한테는 천혜의 보금자리였지만, 지금은 흔적조차 없다.

과거 중문해수욕장에서 붉은바다거북이 1998년 10월에 부화한 장면과 2002년 5월에 산란하는 모습이 각각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포착된 이후로, 살아있는 거북의 모습이 귀해졌다. 아쉽지만 그 인연으로 중문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주도하는 바다거북의 방류 행사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공 부화한 새끼 거북과 구조된 바다거북들이 이곳을 기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최근 제주 해안에서 바다거북들이 인간이 버린 그물이나 플라스틱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 또한 모래밭이 사람들의 전용 해수욕장으로 이용되면서, 거북이는 산란 장소마저 빼앗겼다. 심지어 밤에도 해수욕장이 환해지면,

제주의 모래 해안(안덕면 사계리와 구좌읍 하도리)





푸른바다거북 방류 장면(2017년 9월 28일)

붉은바다거북과 푸른바다거북은 상륙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해수욕장은 시설물 확장, 도로개설, 매립, 모래 유실, 기후위기, 쓰레기 등으로 환경이슈를 선점하고 있다. 육상과 해양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과 비닐은 거북이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장수하기는커녕 잠수도 힘든 지경이다.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제주의 해안선 수위도 올라가면서, 거북이는 영영 제주도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먼 훗날 제주의 해변이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그물에 걸려 희생된 푸른바다거북(사진 김병업)



바다거북은 어두운 시절엔 선물로 죽고, 편한 세상엔 그물로 죽고 모두 인간의 욕심으로 희생되고 있다. 한때 백종 목동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가,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던 거북이로서는 억울함이 크다. 거북이는 사람처럼 고향을 찾아오는 습성이 강한 동물인데, 바다에서 헤매고 있다. 바닷속에 있다가 머리를 내밀어 한라산을 보고서는 빠르게 헤엄치던 날을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다. 거북이는 분명 토끼보단 느리지만, 오대양을 누비며 장거리를 여행하며 오래 산다. 거북처럼 느리지만 오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주의 생명과 제주다움도 장수해야 한다. 🐢

어머니의 숨비소리

글 〱 사진 김영란 시인 · 제주 시조시인협회

느 거 나 거
그릇 굿이멍
바당은 꿈 갈르지 안 혼다
땅 문세 집 문세
문세엔 혼 걸 베려나 봐시냐
바당은
그릇 굿지 안 후영

계난
살아젓주

-김영란의 시조 「어머니의 숨비소리 2」 전문-

〈표준어 해석〉

네 것 내 것
구분 지으며
바다는 구분하지 않는다
땅 문서 집 문서
문서란 걸 본 적이냐 있었냐
바다는
구분 짓지 않아

그러니
살 수 있었지





어릴 적 포구에 앉아 물질 간 엄마를 기다리노라면
저 멀리 바다에서 휘파람새 울음 같은 숨비소리가 들린다.
어떻게 저런 신비스런 소리가 나는지 신기하면서도
그 소리는 어린 가슴을 아프게 굶었던 기억이 난다.

오죽하면 엄동설한에 소중기만 입고 바다에 들어가서
물질을 했겠냐며 만이인 나에게 가끔씩 눈물로 하소연을
하던 엄마. 소리쳐 울어도 누가 우는지 모르는 바다.
실컷 울고 나면 눈물을 씻어주는 바다. 여러모로 바다는
엄마에게는 고맙기만 한 존재였다. 그렇게 고마운
바다인데 누구에게나 빗장을 열어 허용하기까지 했다.
발땀기 하나 없고 오막살이 집 하나 없는 곳에 시집을
왔으니 고명딸로 곱게 자란 엄마는 기가 막혔다. 땅문서
집문서는 구경도 할 수 없었지만, 바다가 있어서 살아갈
수 있었다고, 바다가 먹여 살렸다고, 그래서 살 수
있었다고. 바다에게 은공이라도 갚으라는 듯 힘주어 자주
말씀하셨다.

이제 바다는 엄마의 신앙이 되었다. 눈 뜨면 마당으로
나가 바다의 안색을 먼저 살피고 문안인사를 한 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신다. 나이 들고 힘드신데 이제 물질을
그만두시라면 바다에 놀러 가는 거지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고 하신다. 결혼한 후에야 배운 물질이라 그제나
이제나 똥꾼해녀(초보해녀) 신세를 면하긴 어렵지만,
당신보다 나이 많은 언니가 둘이나 더 있다며 명퇴는 아직
이르다 하신다.

엄마의 그 바다에 봄이 왔다. 봄 바다. 연초록 눈웃음으로
바람 품에 안긴 봄은 분 바르지 않아도 얼굴색이 곱다.
성긴 돌담 너머 실바람이 넘나들면 하늘도 안개바다에
슬쩍 손을 담글 테지. 하늘도 아래로 내려 꽃잎에 입
맞추고 싶어 안달 나겠지.

눈 부신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물미역 바다 향으로
엄마의 미수동 바다가 찰랑거린다. 🌊



영주십경의 유래와 변천 그리고 미래

글 강용희 (사) 제주역사문화연구소 소장



동서양을 막론하고 특정 지역의 빼어난 자연풍광이나 볼거리를 몇 가지로 추려서 선정하는 시도는 늘 있었다. 그러한 시도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진행한 경우도 있고, 그 지역을 찾은 외부인에 의해 이뤄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단양팔경(丹陽八景), 관동십경(關東十景) 등 각 지역마다 빼어난 경치를 말해주는 단어가 존재하며 도내에서도 우도팔경(牛島八景), 추자십경(楸子十景), 무수천팔경(無愁川八景) 등이 회자된다.

그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용어는 단연 영주십경(瀛州十景)이다. 영주(瀛州)는 제주를 지칭하는 옛 이름으로 영주십경하면 당연히 제주지역의 빼어난 경치 열 가지를 의미하는 단어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고 익숙한 지역의 빼어난 경관 영주십경은

성산일출(城山日出), 사봉낙조(紗峯落照), 영구춘화(瀛邱春花), 정방하폭(正房夏瀑), 굴림추색(橘林秋色), 녹담만설(鹿潭晚雪), 영실기암(靈室奇巖), 산방굴사(山房窟寺), 산포조어(山浦釣魚), 고수목마(古藪牧馬) 이렇게 10가지를 꼽는다.

우리 지역의 빼어난 경관을 몇 가지로 선정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언제부터 있어왔을까. 지역주민들이 먼저였을까,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이 먼저였을까.



기록으로 전해지는 것으로는 조선 중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제주에 왔던 목민관들은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지역을 순회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제주의 뛰어난 경승지를 꼽아보곤 했다.

그중 17세기 말 숙종 때에 제주목사로 왔던 야계(冶溪) 이익태(李益泰)는 조천관(朝天館), 별방소(別防所), 성산(城山), 서귀소(西歸所), 백록담(白鹿潭), 영곡(靈谷), 천지연(天池淵), 산방(山房), 명월소(明月所), 취병담(翠屏潭)을 '제주십경(濟州十景)'으로 꼽았다. 또한 그보다 조금 뒤에 제주목사로 와서 탐라순력도를 남긴



정방하폭(正房夏瀑)

병와(瓶窩) 이형상(李衡祥)은 한라채운(漢拏彩雲), 화북재경(禾北霽景), 김녕촌수(金寧村樹), 평대저연(坪垲渚烟), 어등만범(魚燈晚帆), 우도서애(牛島曙靄), 조천춘랑(朝天春浪), 세화상월(細花霜月)을 제주의 팔경(八景)으로 꼽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주십경과는 조금 다르고 지역도 동쪽에 치우쳐 있다.

그러나 이익태가 단순히 열 곳의 지명만을 열거한 것에 비하여 이형상은 지명 뒤에 구체적인 볼거리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이후에 그대로 답습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상이 제주로 온 목민관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후에는 제주인에 의한 선정도 나타나는데 19세기 중반 영평리에 살았던 소림(小林) 오태직(吳泰稷·1807~1851)은

나산관해(擎山觀海), 영구만춘(瀛邱晩春), 사봉낙조(紗峯落照),
용연야범(龍淵夜帆), 산포어범(山浦漁帆), 성산출일(城山出日),
정방사폭(正房瀉瀑)의 8곳을 선정한다.

이후 조선 헌종 때 제주목사로 왔던 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도 역시 열 곳을 선정하였는데,

영구상화(瀛邱賞花), 정방관폭(正房觀瀑), 굴림상과(橘林霜顆),
녹담설경(鹿潭雪景), 성산출일(城山出日), 사봉낙조(紗峯落照),
대수목마(大藪牧馬), 산포조어(山浦釣魚), 산방굴사(山房窟寺),
영실기암(靈室奇巖)이 그것이다.

이렇게 여럿이 우리 지역의 뛰어난 경치나 풍광을 가려
꼽으려는 시도가 이어졌지만, 단어의 조합 등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다.

현재 열 가지 풍광의 단어 성산일출, 사봉낙조, 영구춘화,
정방하폭, 굴림추색, 녹담만설, 영실기암, 산방굴사,
산포조어, 고수목마 등 익숙하고 제주의 명승지 또는
관광지와 일치하며,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영주십경으로
선정한 인물은 매계(梅溪) 이한우(李漢雨·1823~1881)이다.
매계는 19세기 중·후반의 제주사람으로 학문은 뛰어났으나
당시 매관매직이 횡횡할 정도로 부패한 나라를 보고
시골선비가 급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고향으로
낙향하여 지금의 삼양동 도련에 살면서 후학을 양성한
선비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지금의 영주십경으로 불리는 제주의 뛰어난 경승지
10곳을 꼽아 이름을 붙이고 덧붙여 시를 지었는데
영주십경시는 그의 저서 '매계선생문집'에 전한다.
매계가 지은 영주십경을 노래한 시중 제1경 성산일출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그는 성산일출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고수목마(古藪牧馬)

山立東頭不夜城 산립동두불야성
扶桑曉色乍陰晴 부상효색사음청
雲紅海上三竿動 운홍해상삼간동
煙翠人間九點生 연취인간구점생
龍忽天門開燭眼 용홀천문개촉안
鷄先桃出送金聲 계선도수송금성
一輪宛轉升黃道 일륜완전승황도
萬國乾坤仰大明 만국건곤앙대명

동쪽 머리에 서 있는 산이 불야성 같더니
해 뜨는 곳 새벽빛 잠깐에 어둠이 걷히네
바다 위 붉은 구름 해를 따라 걷히니
사람 하는 마을에 푸른 연기 솟는다
하늘 문에는 문득 용이 눈을 부릅뜨고
복사꽃 골짜기에서 닭 우는 소리 들리네
둥근 해가 높이 솟아오르니
온 세상 나라들이 밝음을 우러른다

좌, 녹담만설(鹿潭晩雪) 우, 영실기암(靈室奇巖)



매계는 이에 더하여 서진노성(西鎭老星·옛 서귀진에서 내려다본 경치)과 용연야범(龍淵夜帆·용연의 밤 뱃놀이)을 더하여 영주십이경(瀛洲十二景)을 만들기도 했다.

영주십경이나 십이경 중 영구춘화의 무대인 방선문이나 산방굴사, 용연 등에는 바위에 글을 새긴 마애명도 여럿 볼 수 있다. 지금 바위에 마애명을 새긴다면 자연훼손이니 환경파괴니 하여 못매를 맞겠지만 과거에는 자연을 벗 삼아서 즐긴 선인들의 풍류로 치부될 수 있었으니 격세지감이다.

최근에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나 제주를 다녀간 누리꾼들 사이에 과거의 영주십경과는 다른 새롭게 아름다움이 발견돼 인기를 끄는 곳이 생겨나 신영주십경이라 불려지는 사례도 보인다.

그 후보들로는 구좌읍 하도리 창흥동 철새도래지, 1100도로 눈꽃, 송악산, 섭지코지, 대포 주상절리, 구좌읍 송당리 아부오름, 월정리 해변, 돈네코, 한경면 고산리 자구네포구, 우도를 신영주십경으로 꼽기도 한다.

어떤 이는 위의 십경 중 1~2개를 빼고 효돈동 쇠소깍이나 사라악을 넣는 이들도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영주십경도



굴림추색(橘林秋色)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화해 왔고 앞으로도 변화하면서 그 내용을 바꿔나갈 것 같다.

기록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20세기 영주십경은 최소 300여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정립됐다. 100년 후 제주의 영주십경은 어떻게 변해있을지 궁금해진다. 🍊



성산일출(城山日出)





엄마 만나러 가는 길

글 허유미 시인

나는 늘 엄마를 고했다.

아기 때부터 엄마랑 보낸 시간보다 아빠랑 보낸 시간이 많다.
엄마는 내가 돌이 지나자마자 나를 아빠에게 맡기고 물질을
갔다. 어렸을 적부터 지켜본 엄마는 밭일과 바닷일로 바빴고
나는 늘 아빠에게 안겨 있었다. 내가 종일 밥도 안 먹고 울며
보채는 날에 아빠는 나를 데리고 바다에 가기도 했다.
바람코지 언덕에 있으면 엄마를 느끼는지 밥알을 입에
넣어주면 먹고 울음도 그친 적이 몇 번 있었다.
갯가에 앉아만 있어도 바닷바람에 실려 오는 숨비소리에
엄마를 느꼈을까? 엄마가 숨비소리를 낼 때마다 나는
해녀콩처럼 동그랗게 눈을 뜨고 엄마를 찾는 듯 고개를 들어
사방팔방 머리를 돌리기도 했다.

옛 추억이 새록새록 돋는 사진들



아빠와 함께 엄마를 만나러 가던 길을 다시 걸어 보았다.
아직도 신작로가 뚫리지 않은 옛길 그대로이다. 흙 반 돌 반
길이라 어렸을 적 건다 넘어서 무릎이 깨지고 발을 뺀 적도
많은 길이다. 예닐곱 걸음 건고 중심을 잃고 넘어서 울고
다시 예닐곱 걸음 건다 넘어지고, 어쩌다 열 걸음 채우면 뒤에
오던 아이가 넘어서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 길옆에는 알뜨르 비행장이 있다. 아래를 뜻하는 제주어
'알'과 '넓은 들판'을 뜻하는 제주어 '드르'가 합쳐진 말이다.
즉, 제주도 아래쪽에 있는 넓은 들판이라는 뜻이다. 알뜨르
비행장은 일본 해군이 1931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했고,
1937년 중일전쟁 초기 폭격기지로 사용하면서 1945년
일본 본토결전 작전 준비 비행장으로 이용되었다. 당시
일본군들이 제주도민을 강제 동원해 건설한 전투기 격납고
19기가 현재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1기는 잔재만 남아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 10기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일제 침탈의 역사를 전하고 있다.



어렸을 적 마을 경로잔치나 청년회 소풍이 있을 때마다 알뜨르 비행장에 자주 왔었다. 사탕과 김밥을 먹으며 뛰어놀면서도 비행장 관제탑이나 격납고 쪽으로는 가지 않았다. 어른들이 말해준 것도 아닌데 우리 아이들끼리는 그곳에 시체가 많다는 말을 주고받으며 숨바꼭질할 때도 그곳에 숨지 않기로 약속했고 어린 아기들이 그곳으로 아장아장 걸어가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뛰어가서 아기를 안고 왔다. 역사의 상처를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고 자랐다. 격납고는 한때 농민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창고처럼 사용되었고 지금은 대개 그 안이 비어 있다. 그중 하나에는 평화를 기원하는 조형물로 철근으로 제작한 전투기의 모형이 들어가 있다. 다크투어리즘이나 올레 10코스를 찾는 분들이 평화 리본을 달아주어 멀리서 보면 새 한 마리가 어두운 격납고 안에서 그 시대의 상처를 딛고 날아오르려는 모습 같다.

알뜨르 비행장 한쪽은 아직도 띠가 많다. 늦봄에 띠 새순이 올라오는데 우리는 그 새순을 뽕이라고 했다. 뽕이가 많은 곳은 뽕이 잘 나온다고 어른들은 “뽕이 빠레 땡기지 말라”고 했지만, 한 주머니 가득 뽕아 꺾질을 벗겨 새순을 먹었다. 씹으면 바로 단물이 나와 씹고 빨고 하다가 튼 뽕고, 다시 새순을 먹고, 상대의 뽕이를 빼앗는 놀이를 하기도 했다. 뽕이를 조금 잡고 손을 돌려 밑으로 흘어놓으면 뽕이끼리 서로 포개어지다가 삼각형 모양의 구멍이 생기는데, 그 구멍 속에 뽕이를 많이 집어넣었다가 건드리지 않고 빼어내면 그 숫자만큼 상대의 뽕이를 뺏어오는 놀이로 뽕이치기라고 했었다. 구슬치기는 동네에서 제일 못했지만, 알뜨르 비행장에서 뽕이를 뽑고 뽕이치기 하는 것은 잘해서 친구들이 내 주변으로 모이는 맛과 뽕이 단맛으로 넓은 비행장을 제 마당인양 펄쩍펄쩍 뛰어다녔다.

길가에 드문드문 노란 갯갯꽃이 만발한 모습도 그대로다. 꽃이 피어도 연한 갯나물을 뜯어 먹으면 단맛이 났다. 그래서 이맘쯤이면 엄마를 보러 가다 목이 마르거나 입이 심심하면 갯나물을 한 줌 뜯어 우걱우걱 씹으며 걸었다. 이 봄의 맛을 누가 알까? 누가 알지 못해도, 십 년이 지나도



▲
아버지와 함께
알뜨르비행장
활주로 위를 걷고 있다.



▶
조금 있으면
볼래 맛이
제법 좋을것 같다.

이 길에 갯갯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에 다시 갯갯꽃을 뜯어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고향의 모습이 너무 변했다. 초가, 슬레이트 지붕들만 있던 곳에 카페가 생기고 펜션이 생겨 이웃집이 그것들에 가려 잊히는 것처럼 개발로 들과 길이 사라지면 고향이란 단지 글자로 남거나 사회 시험 문제처럼 암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고향은 가족이나 친지를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내 유년의 기억이 깃든 장소 중 하나쯤은 변하지 않고 있어서 나를 하룻밤 더 붙잡아 둘 수 있었으면 한다. 때로는 일상의 피곤함을 한때의 즐거웠던 기억으로 이겨낼 때도 있다. 알뜨르 비행장을 지나면 엄마가 주로 물질을 하는 대남굴 바다가 나온다. 굴이 많아서 대남굴 바다라고 한다. 지금은 환경 문제로 굴이 없지만, 어렸을 적에는 썰물이면 갯바위에 붙은 굴이 많았다. 돌을 가져다가 굴 껍데기를 깨고 바닷물에 굴을 행궤 먹었다. 갯바위에는 굴 말고도 먹을 것 천지였다.



작은 전복, 문어 등이 늘 있었다. 나 말고도 동네 다른 해녀 집 아이들 여럿이 와서 엄마를 기다리다 배가 고프면 전복을 따먹고, 힘을 합쳐 문어를 잡아 마른미역이나 감태를 태워 문어를 구워 먹었다. 모두 엄마를 굶아 온 아이들이고 배도 굶은 아이들이어서 이름을 묻지도 않고 같이 놀다 헤어져도 다시 며칠 뒤에 대남굴 바다에서 또 만났다. 대남굴 바다는 해녀들이 주로 물질을 하는 곳이다. 소라, 성게도 많고 톳도 많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렸을 적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태풍에 허물어진 불턱을 시멘트로 얼기설기 보수한 것 빼고는 내가 어느 갯바위에서 굴을 깨 먹었는지, 어느 바위 물고랑에 군소가 많았는지 다 기억할 수 있다. 엄마를 기다리던 바람코지 언덕도 그대로다. 대남굴 바다는 아직 푸르니 그대로이지 않을까 싶다.

엄마는 대남굴 바다에서 물질도 했지만, 송악산 앞바다에서도 물질을 했다. 송악산은 대남굴에서 걸어서 20분 거리다. 대남굴 바다를 둘러보던 발길이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꾼다. 송악산 앞바다는 유난히 돌이 많았고 너럭바위보다 뾰족하고 울퉁불퉁한 돌이 많아 주로 앞바다 주변 공터에서 놀았다. 조개나 전복의 껍데기가 많아 소꿉놀이하기도 좋았고 산딸기, 볼레, 삼동이 있어 대남굴 바다와는 다른 색다른 맛으로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은 송악산 앞바다 공터가 잔디밭으로 조성되어 있고 온갖 먹거리 가게와 토산품 상점이 즐비하다. 그리고 너른 주차장은 늘 차로 가득 찼다. 하지만 형제섬, 가파도 마라도까지 보이는 절경과 청량한 바다에서만 느낄 수 있는 시원한 바람은 아직도 길을 가득 메우고 있다.

어렸을 적 일 년에 두 번 있던 소풍 중 한 번은 꼭 송악산으로 소풍을 갔다. 일 학년 첫 소풍 장소가 송악산이었는데 도시락을 친구들과 먹지 않고 엄마랑 먹었다. 물론 다른 친구들도 엄마랑 먹는 아이들도 많았다. 일 학년 첫 소풍이라고 학부모회에서 선생님들 도시락을 준비하고 아이들 간식을 따로 챙겨온 부모님들이 계셨다. 김밥 외에도 고기반찬이며, 튀김 등을 싸 와 아이랑 같이 먹었다.

엄마는 학부모회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그날 엄마랑 도시락을 먹었다. 당시 대정초등학교 전 학년이 송악산에 소풍을 와서 점심시간에 나랑 언니랑 오빠는 송악산 앞바다에서 만나 엄마를 기다렸다. 봄 소풍쯤에는 늘 소라 철이었다. 소라 철에 해녀들은 한시도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밤낮을 쫓개며 물질을 했다. 자식들 소풍을 따라가면 그날 하루 물질은 공치게 되고, 아이들 소풍시간을 잠시나마 같이 보내고 싶었던 엄마가 낸 계책은 물질을 하다가 소풍 점심시간에 송악산 앞바다에서 만나 점심을 먹자는 것이었다. 그날 엄마 모습이 아직도 기억난다. 지금 같은 고무 해녀복도 없이 파란 티셔츠에 빨간 바지, 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으로 만났다. 한 손에는 전복을 따는 빗창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작은 전복 세 개를 쥐고 있었다. 언니는 가방에서 엄마 뒤통의 도시락을 꺼냈고 나는 도시락과 소풍이라고 특별히 사준 빠다코코넛 비스킷을 꺼냈다. 우리는 숨을 장소가 필요해서인지, 바람을 막기 위해서인지 송악산 절벽을 등지고 김밥을 먹었다. 다른 엄마처럼 불고기나 튀김을 준비하지 못한 대신 엄마는 손에 쥐었던 전복을 빗창으로 살을 발라 입에 넣어 주셨다. 새벽 물질을 나가야 했던 엄마는 전날 저녁에 미리 김밥을 썬 탓에 김밥은 마르고 딱딱했고 전복 살은 너무 탄탄해 한참 입에서 오물거렸다. 아마 그때는

대남굴 바닷가에 복원된 불턱. 시멘트를 바른 것이 못내 아쉽다.





창피해서 그것들을 삼키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고개를 돌리면 옆집 또래 남자애도 해녀 엄마랑 그렇게 밥을 먹고 나랑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다. 건너편에는 다리 힘이 좋아 늘 서거나 제자리 점프를 좋아해서 고무줄놀이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친구도 그날은 다리와 몸을 최대한 오므려 해녀 엄마랑 김밥을 먹고 있었다. 지금은 그 창피스러움을 다시 느끼고 싶다. 창피스러운 시간이 이제는 내 고향 한 곳을 지키고 있고, 제사 때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우고 몇십 년 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나도 낯설지 않고 반은 놀리고 반은 그 창피스러운 시간을 아껴주듯 가슴에 다시 한번 담는 시간을 갖게 해준다. 지금 송악산 앞바다를 걷는 시간 또한 몇십 년이 지난 후에는 아끼고 보듬는 시간이 될 것이다.

첫 소풍 때의 기억 때문일까? 그 후에 나는 송악산 소풍과 엄마 물때랑 맞으면 내가 엄마를 찾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했다. 고학년이 되어서는 자전거를 자유자재로 탈 수 있게 되었다. 엄마가 물질로 저녁 무렵이 되어도 오지 않거나 공휴일이면 오늘 걸었던 이 길을 자전거 타고 엄마를 보러

갔다. 청보리밭 지나며 휘파람을 길게 불면 형제섬, 가파도, 마라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마의 땀을 식혀주고 바다에 걸린 붉은 해는 자전거 바퀴 원주보다 크게 크게 이글거리고 있었다. 바다에 다다르면 성게 가시 독으로 통통 부은 손을 몸 대신 반갑게 흔들며 소금기 그을린 얼굴로 엄마는 웃고 계실 때가 많았다. 간혹 엄마를 기다릴 때도 있었지만 지루하진 않았다. 돌고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송악산 앞바다에는 돌고래가 많았다. 멀리 윤슬이 스멀거릴 즈음 시선을 돌리지 말고 바다를 계속 보고 있으면 돌고래 떼들이 수면 위로 올랐다 바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여간 반갑지 않았다. 엄마를 만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엄마는 내가 심심하지 않게 고래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다. 조선시대 전부터 고래가 새끼를 낳고 미역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출산 후에는 미역국을 먹는다고 했다. 고래는 콩치나 고등어, 오징어를 잡아먹는데 새끼를 낳고는 젖을 먹이기 위해 미역을 먹는다고 했다. 그동안 먹은 것과 입에 맞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미역을 먹는 걸 보면 사람

멀리 송악산을 배경으로 부모님과 함께





송악산 앞바다에서 갓잡은 소리를 손질중인 어머니

이상으로 모성애가 깊은 영물이다. 할머니 혹은 할머니의 할머니 적부터 고래는 영물이라 들었다. 돌고래가 보이면 돌던지며 노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은 야단을 쳤다. 돌고래에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돌고래는 사람을 구하기도 한다고. 물질할 때 간혹 고래가 엄마 옆에 와도 겁내지 않고 계속 물질을 한다고 했다. 간혹 엄마가 고래와 놀려고 팔다리를 느리게 휘저으면 고래는 자기랑 놀아주는 것을 안듯 엄마 주위를 빙빙 돌았다. 타지에 살다가 이곳으로 시집오거나 이사 온 해녀들은 돌고래를 보면 놀란다. 특히 물질하다 돌고래가 자신을 칠까 봐. 그래서 물속에서 돌고래가 보이면 물 위로 올라와 테왁을 붙잡고 돌고래가 갈 때까지 기다린다. 돌고래가 오면 “배 알로~ 물 알로~”말하면 돌고래는 말을 알아듣고 사람 밑으로 지나간다고 말해줘도 돌고래를 겁내는 해녀들은 여럿이었다. 그리고 죽은 새끼 돌고래를 지느러미에 놓고 느릿느릿 헤엄치며 구슬프게 울어대는 돌고래도 바다에서 보았다고 한다. 돌고래를 생각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송악산 앞바다 해녀촌식당에서 장사하고 계신 엄마를 만났다. 바다에서 볼 때는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엄마, 아빠, 나는 해벌쪽 웃으며 봄 햇살을 쬔다. 돌아가는 길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방향으로 걷는 사람들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걸음이 때로는 함성이 되고 때로는 의지가 되어주면서 오늘의 쓴웃음이 내일은 환하게 만들어준다.

소낭발

4:3 기억터



바다에서 돌아와 집에 거의 다다른 길, 대합실 맞은편에 소낭발이 있었다. 동네 소낭발이 여러 군데이고 어느 소낭발이든 지네잡이를 다녔지만, 이 대합실 맞은편 소낭발은 가지 않았다. 소낭발 근처에만 가도 을씨년스러운 기운이 돌고 유난히 어두웠다. 아빠는 이 소낭발 앞을 지날 때면 나를 들어 잔걸음으로 걸었다. 혹여나 내가 무서워할까 봐 그런가 싶었는데, 몇십 년이 지나서야 그 이유를 알았다. 그 소낭발은 4:3때 예비검속으로 할아버지를 포함 동네 분 열아홉이 한날한시에 돌아가신 곳이다. 오늘도 송악산에서 엄마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낭발을 지나게 된다. 몇 년 전에 만들어진 비닐하우스로 소나무들은 사라졌지만 4:3 학살 현장을 알려주는 안내판이 있다. 이제는 나를 들고 잔걸음으로 갈 수 없는 아빠의 걸음이 4:3 안내판 앞에서 느려지고 안내판을 보며 잠시 이야기를 나눈다. 무거운 말들이 서럽게 쓰러지며 남은 오후의 시간을 자욱하게 만들었다. 밤새 폭풍우 치던 바다가 뒷날 더욱 푸른 것은 물이 바다가 폭풍우를 잘 견디도록 응원해주기 때문이다. 아빠의 그날은 하루에 몇 번을 생각해드 울음이 폭풍우 친다. 그 폭풍우 치는 울음을 엄마는 숨비소리로 응원하고 나는 오늘처럼 아빠와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며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응원할 것이다.

그리움에서 사랑으로 사랑에서 미래를 생각하는 숨비소리들이 파도에 어우러질 때 그것은 해녀의 가슴앓이 노래가 되고 아이들의 자장가가 되기도 한다. 해녀가 물에서 나와도 숨비소리는 새벽까지 바다에 남는다. 숨비소리가 바다별이 된다는 것을 나는 엄마께 들었고, 믿는다. 바다별은 언제나 오늘 우리가 걸었던 길을 밝게 비추고 보살필 것 또한 믿는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길 위에서 삶과 풍경을 함께 보며 온기를 느꼈으면 한다. 🍷

도민 속으로 탐라지인(耽羅之人)

한담마을 장한철산책로와 「표해록」

글 편집부





《표해록(漂海錄)》

망망대해를 떠돌다 낯선 섬에 닿고, 고초를 겪다 구사일생 생환한 이야기를 흔히 ‘표류기’라고 한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표류기는 네덜란드 상인 하멜이 쓴 「하멜 표류기」가 있다. 이 책은 1653년 상선을 타고 일본으로 가던 중 난파되어 제주도에 표류한 하멜 일행이 조선에서 보낸 13년간의 여정을 귀국 후 기록한 책이다. 소설로는 프랑스 작가 질 베른의 「15소년 표류기」도 있다.

「하멜 표류기」가 이방인이 우리나라에 표류한 이야기라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표류한 이야기도 전해진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표류하면서 겪은 체험과 여정을 기록한 기행록을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표해록’이라 일컫는데 같은 그중 대표적인 이야기가 제주 애월 한담 사람 장한철이 쓴 《표해록(漂海錄)》이다.

장한철은 표류 당시 매일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장이 조난 시 바닷물에 빠졌으나 기적처럼 일기장이 들어있는 행랑이 파도에 떠밀려 나온 걸 건져 올렸다고 한다. 《표해록》은 그 일기를 기본으로 하여 표류 도중 겪었던 일을 한문으로 필사한 책으로 이야기의 시작은 영조 46년(1770년) 12월, 애월 한담마을에 살던 장한철은 과거를 치르기 위해 조천 포구에서 일행 28명과 함께 한양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한양으로 향하던 배는 미처 육지에 닿기 전 태풍을 만나 지향 없이 표류하게 된다. 갇은 고초를 겪고 사경을 헤매던 일행은 겨우 유구(오키나와) 열도 호산도에 도착하였지만, 왜구의 습격을 받게 되고 구사일생으로 안남(베트남) 상선에

의해 구조된다. 하지만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옛 원한이 있는 안남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하고, 또다시 표류하며 사경을 헤매게 된다. 표류하던 장한철 일행이 구사일생으로 청산도 근처에 닿은 것은 조천포구를 떠난 지 한 달여 만이었다. 함께 출발했던 29명 가운데, 21명은 죽고 8명만이 살아남아 과거에 응시하러 길을 떠났다.

장한철의 《표해록》은 당시 표류 상황과 더불어, 그가 지나간 해로와 물의 흐름, 계절풍의 변화 등을 담고 있어 해양지리서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해양문학으로서의 가치 또한 높다.

특히 1770년 12월 27일 일기에는 노인성(老人星)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어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또한 1771년 1월 5일(초닷새) 일기에는 설문대할망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등 그의 《표해록》에는 제주도의 전설이 총집결되어 있다. 《표해록》은 학계에 보고된 조선 시대 표해기(票海記) 가운데 문학적성이 가장 뛰어난 문학지, 해양문학의 백미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표해록》을 쓴 장한철의 출생지 제주시 애월읍 한담 마을에는 장한철 생가를 복원하고 장한철 창작실을 만들어 전시하고 있다. 생가 주변으로는 1770년 12월 25일,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조천포구로 떠나기 전까지 장한철이 거닐었을 산책로를 ‘장한철 산책로(한담표해록갯길)’로 조성하였다. 이 지역은 해안절경이 수려하고 일몰 시 석양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으로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바다와 최대한 가깝게 조성된 산책로는 드넓은 바다를 감상하며 여유롭게 산책을 즐길 수 있어 마을주민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한철의 《표해록》은 국립제주박물관 장한철 필사본과 국립중앙도서관(심성재 필사본)에 소장된 필사본 2권이 전해온다. 특히, 국립제주박물관에 보관된 《표해록》은 책으로는 처음으로 제주도 유형문화재 27호로 지정되었다. 



도민 속으로 동인열정(同人熱情)

제주의 돌을 보석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사)제주돌담보전회

글 고영림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장

사진 편집부

제주를 대표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중 돌은 단연
 제주의 대표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바닷가에 가면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검은 돌들이 익숙한
 풍경이다. 집에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집담, 밭에는
 밭담, 그리고 묘에는 산담이 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돌들이 흔하다 보니 제주의 돌이 지닌 가치를 다른
 시선으로 보는 기회가 많지 않은 듯하다. 한국의
 다른 지방과 달리 독특한 풍광을 지닌 제주
 돌이 만든 부분이 압도적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어디서나 보이는 돌을 보석처럼 여기면서 돌문화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있다. (사)제주돌담보전회의 봉사 현장을
 방문하여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봄기운이 완연한 3월의 주말, 사람들이 하나둘 매월 바닷가로 모여든다. 매달 두 번째 토요일에 진행되는 돌담 보수 봉사에 기꺼이 참여하는 사람들로 (사)제주돌담보전회의 회원들이다.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는 환해장성의 비지정 구역의 돌담을 보수하러 나온 참이다. 햇살이 가득한 날이라 그런지 표정이 밝고 움직임도 활기차다. 조경근 이사장이 회원들과 함께 잡풀과 넝쿨을 제거하자 숨어 있던 돌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다. 제주에 살면서도 이런 봉사를 하는 장면은 자주 접하지 못했던지라 그들의 부지런한 움직임에서 에너지가 느껴진다.

환해장성의 비지정 구간을 보수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해서 엄두를 내지 못해 아쉬웠지만 그 대신 잡풀에 가려져 있던 해녀의 불턱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렸다. 무너진 불턱의 돌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주는 회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절로 퍼진다. 봉사를 마치자 조경근 이사장이 규모가 매우 큰 원담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회원들을 이끈다. 아침에 모습을 드러냈던 원담은 오후가 되어 밀물로 거의 잠긴 상태라 그 모습을 온전히 보지는 못했다. 다음에 시간 때를 맞춰 다시 찾아오기로 했다.

이 봉사를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진다. 고향 제주를 떠나 타지에서 직장생활하고 40여 년 만에 귀향한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민간항공사의 조종사로 근무했던 이는 세계 각지를 방문하면서 제주의 가치를 늘 생각하게 된 경우다. 호텔업계에서 오래 재직했던 이는 고향에 돌아온 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중학교 교장으로 은퇴 후 제주로 이사 온 여성과 제주 출신 남편과 결혼해서 젊었을 때부터

제주에 살고 있는 여성은 제주 돌담의 매력에 푹 빠져있던 중 이런 봉사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한다.

청보리로 유명한 가파도의 돌담을 보수한 일은 회원들에게는 생각만 해도 뿌듯한 일이다. 가파도 총 둘레 12km 중 3km를 2년 동안 매달 한 번씩 보수했고 총 6km 정도는 보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파악된다. 가파도의 사례는 돌담 보수 봉사에 회원들의 참여가 그만큼 적극적이었다는 의미다. 이런 노력은 앞으로 하게 될 다양한 활동의 뿌리가 된 셈이다.

우선 제주의 돌담을 유네스코의 무형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제주 돌담의 가치를 알려주면서 등재를 위한 노력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이미 돌문화로 8개의 나라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한 나라가 아닌 여러 나라가 공유할 수 있어 동일한 축조기법을 가진 나라라면 공동등재가 가능하다. 게다가 높이 55미터에 이르는 돌하르방을 제작하는 계획은 제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만드는 일로 기본 설계를 마친 상태라고 한다. 제작 기간을 제주도민의 축제로 만들고 싶다고 하니 이 계획이 실행되는 날이 기다려진다. 세계돌문화축제도 기획하고 있는데 사람과 돌의 관계를 두루 체험하고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이벤트가 되고 제주의 돌문화가 국제적으로 홍보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민간이 주도하여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행정의 뒷받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진다. 현재 제주 발담은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가 담당 부서지만 제주 돌담은 담당부서가

없는 현실이다. 제주의 미래 가치 중 하나로 제주 돌담을 제주도의 정책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올해는 즐겁고 의미있는 전국적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오는 9월에 ‘문화재지킴이전국대회’를 제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사)제주돌담보전회가 유치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장을 비롯하여 지킴이 관계자 1,000명이 참가하는 행사로 예상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와흘마을, 신흥중앙회, (사)제주돌담보전회가 협약을 맺었다. 신흥중앙회의 2,500명을 연수하는 프로그램으로 돌담쌓기 체험을 주관하기로 한 것이다. 와흘마을의 전통 발담길을 복원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민간단체가 노력해서 꾸준히 활동한 것의 성과를 토대로 많은 사람들이 제주 돌담을 직접 쌓으면서 역사적 배경과 가치를 현장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본다.

(사)제주돌담보전회의 제주돌담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돌담쌓기 기초과정, 전문석공을 양성하는 석공심화과정, 문화재청 문화재수리 기능사 자격증과정이 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전해온다. 진성기 관장이 만든 국내사립박물관 1호인 ‘제주민속박물관’이 문을 닫은 후 같은 장소에 설치된 ‘작은마을도서관’에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는데 앞으로는 제주돌문화공원에서 교육할 예정이다.

제주에는 태풍이 지나가는 곳이라 무너진 돌담 보수가 필수적이다. 돌담 보수를 요청하는 마을이 있으면 기꺼이 봉사한다. 배운 기술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기분 좋은

우연히 해녀들의 옛볼턱을 발견하여 정비하고 복원한 모습



경험이 쌓이다 보니 제주 돌담에 대한 애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너진 돌담 보수 봉사, 랜드마크 역할의 돌하르방 제작 기획,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 돌담학교를 통한 후속 세대 양성 등 이것들을 하나씩 해낼 수 있는 이유는 회원들의 열정과 집행부의 기획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있다는데 다름 아닌 학술조사와 연구 활동이 그중 하나다. 환해장성에 대한 정확한 축조 연구를 위해 학술 세미나도 열 계획이다. 특히 제주 전통 석공의 맥을 잇는 일은 시급한 일이라 명장이나 문화재급 석공들을 배출할 수 있는 기능대회가 필요한 현실이다.

제주 토박이면서도 제주의 돌이 이렇게 훌륭한 유산인 줄 미처 몰랐다는 여성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재미있다. 제주와 많이 닮은 곳이자 돌담이 특색있는 아일랜드에 여행 다녀온 20대 아들이 돌 장인이 되겠다고 선언하자 그때부터 제주의 돌이 왜 중요한지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사)제주돌담보존회의의 회원이 된 배경에는 다름 아닌 아들의 변화가 결정적이었다.

20대 청년이 제주 섬을 떠나기 전에 본 것과 돌아와 다시 만난 대상은 같은 것이면서도 더 이상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알고 보니 가까이에 있었던 것이다. 제주에서 제주로 떠나기, 일상을 낯설게 만들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여행이라는 경험, 물리적으로 이동하여 다른 풍광과 문화를 접하면서 제주를 떠올린 한 청년의 이야기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 초청으로 제주를 방문하여 친환경도시를 주제로 특강을 한 독일 프라이부르크시 미래연구소의 아스트리드 마이어(Astrid Mayer) 소장이 했던 말이 떠오른다. “제주국제공항에 항공기가 착륙하기 전에 내려다본 제주 섬의 풍경은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발담과 돌담이 구불구불 그려낸 제주 섬의 모습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더 늦기 전에 빨리 깨닫고 보듬어줄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무너진 돌담을 다시 쌓고 복원하는 일만큼이나 주변 환경정화도 봉사활동에 큰 몫을 차지한다.

과거의 것으로만 여기기 전에 오래된 것들이 현재와 미래에 전해주는 가치와 정신을 차분히 돌아보는 것이 어떨까.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감성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면 역시 과거의 것은 편안하다는 증거다. 제주의 돌담이야말로 과거의 유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을 위한 마음의 쉼터이자 후속 세대와 소통하는 훌륭한 매개가 될 수 있다.

제주의 돌담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경험을 해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제주와 돌담을 만난 후의 제주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리라 생각한다.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알고 싶다면 돌담을 직접 쌓아 보는 것은 어떨까. 제주의 돌담이 독특한 풍광의 재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주인이 살아온 역사와 정신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

추억과 봄을 파는 곳, 제주오일장

술술 부는 봄 향기 따라 떠나는

제주 봄나들이를 안내해드립니다.

제주민속오일장

제주 중심시장의 명맥을 잇고 있는 민속시장으로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오일시장이다. 제주의 민속 풍물과 함께 없는 거 빼고 다 있는 곳, 맛있는 군것질과 맛집이 즐비하여 어느 백화점도 부럽지 않은 곳이다. 특별히 65살 이상의 제주 할머니들이 모여서 장사를 하는 '할망장터'에는 봄나물 향이 가득하다.

- 📍 제주시 오일장서길 26
- 📅 2, 7, 12, 17, 22, 27일
- 🕒 08:00 - 20:00

한림민속오일시장

한림항 근처에 있어 갯 잡아 올린 수산물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맛있는 김밥집이 있다. 농어업이 발달한 지역인 만큼 쇠를 두드려 농기구를 만드는 대장간이 자리하고 있다. 대장장이의 두들김소리와 불꽃만으로도 이곳을 방문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곳이다.

- 📍 제주시 한림읍 한수풀로4길 10
- 📅 4, 9, 14, 19, 24, 29일
- 🕒 08:00 - 17:00

대정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은 6·25전쟁 당시 문을 연 곳으로 서귀포 서부지역에서 가장 큰 오일장으로 모슬포에 자리 잡고 있어 모슬포 오일장이라고도 불린다. 지역 특산물인 마늘, 감자를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골라 먹는 꼬마김밥과 호떡이 유명한 곳이다.

- 📍 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로36번길 65
- 📅 (1), 6, 11, 16, 21, 26, 31일
- 🕒 08:00 - 14:00

중문향토오일시장

서귀포 관광 명소가 가득한 중문 관광단지 가운데 위치한 중문향토오일시장은 1950년대 피난민들과 함께 형성된 시장이다. 30개 점포가 도란도란 손수 농사지는 농산물과 수산물을 판매하는 시골 장터의 소박함이 있는 곳이다.

- 📍 서귀포시 천제연로188번길 12
- 📅 3, 8, 13, 18, 23, 28일
- 🕒 08:00 - 14:00

함덕민속오일시장

함덕민속오일시장은 두 개의 건물로 나뉘어 대략 40개 정도 점포가 있는 소박한 규모의 시장이다. 오전 일찍 방문하여 시장 안 고기 국수 맛집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유명한 견과류를 한 움큼 손에 들고 맛은편 함덕 해수욕장에서 푸르른 바다를 바라보며 즐기면 완벽한 하루의 코스가 만들어질 것이다.

- 📍 제주도 조천읍 함덕16길 15-13
- 📅 1, 6, 11, 16, 21, 26일
- 🕒 08:00 - 14:00

세화민속오일시장

세화해수욕장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세화포구 인근에 자리한 이곳은 대략 150여 개의 점포가 입점해있는 동쪽 대표 오일시장이다. 유명한 분식집이 있으며, 빙떡과 순대국밥등 식도락 여행도 가능한 곳이다.

- 📍 제주도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1412
- 📅 5, 10, 15, 20, 25일
- 🕒 08:00 - 14:00

성산-고성오일시장

성산 지역의 유일한 시장으로 성산읍에 거주하는 동네 주민들이 주로 방문하는 시골 장터의 정감이 있는 곳이다. 성산 일출봉 가는 길목에 있는 시장으로 올레길 2코스과 명소들이 인접해 있어 부담 없이 들를 수 있다.

-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93
- 📅 4, 9, 14, 19, 24, 29일
- 🕒 08:00 - 14:00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서귀포시를 대표하는 오일시장이다. 넓은 주차장과 구역이 시원시원하게 정돈된 시장은 다양한 품목과 방문객들이 늘 북적인다. 맛있는 튀김집과 쏙떡으로 속을 든든하게 채운 후 넓은 공간을 구경해도 좋은 것이다.

- 📍 서귀포시 중산간동로7894번길 18-5
- 📅 4, 9, 14, 19, 24, 29일
- 🕒 08:00 - 21:00

표선오일시장

표선오일시장은 생활용품, 농산물을 판매하는 건물과 표선항에서 바로 온 신선한 제철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어시장이 크게 따로 자리 잡고 있다. 소박한 가게 중 콩물과 두부를 파는 곳이 특히 인기가 좋다.

-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03-1
- 📅 2, 7, 12, 17, 22, 27일
- 🕒 08:00 - 14:00

독자설문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독자설문을 작성하여 사진 촬영 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열 분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호 <드림제주>에서 가장 좋았거나 아쉬웠던 기사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드림제주>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이름

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하는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는 상품 배송 용도로만
이용되며, 목적달성 후 파기(미 당첨자 정보 포함)합니다.
(단, 미동의 시 선정대상자 제외)

📷 사각 라인에 맞춰 사진 촬영 후 이메일(hongbro1618@korea.kr)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당첨되신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드립니다.(접수 마감 : 2023년 5월 31일)

독자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정관 제주목사 노춘과 노봉을 만나다」가 가장 좋았습니다. 마을 소문학에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번호 소담만담 코너에 소개된 봉아름문학회도 찾아가보렵니다.

서희식 님



「삶과 세상을 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봉아름문학회」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기사내용이 좋았습니다. 글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수고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른신 얘기도 많이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은실 님

우리 모두 함께 해요~!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자, 고향, 지역생산자 모두에 도움을 주는 1석 3조의 행복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거주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



전국 농협은행 방문·신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주의 아름다운 등대

산지등대

제주도의 관문인 제주항을 품은 사라봉 중턱에서 제주 북부 연안을 향해하는 선박의 지표 역할을 하는 제주의 대표 등대이다.

등대의 이름 ‘산지’는 『탐라순력도』의 기록 ‘산지촌(山地村)’에서 유래했다. 한라산에서 발원한 산지천이 건입포를 지나 바다로 흘러들었기 때문에 ‘산저(山底, 산밑)’라고 하였던 것이 나중에 ‘산지’로 바뀌었다고 한다.

등대 주변으로 넓게 펼쳐진 바다와 영주십경의 하나로 꼽히는 사봉낙조(沙峰落照)의 사라봉이 자리하고 있어 주변 경관이 뛰어나다. 도심지와 가까워 학생들의 등대탐방을 겸한 체험학습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등대 역할 뿐만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되며 관광 자원으로서도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1916년 10월 1일 무인등대로 최초 점등된 산지 등대는 1917년 3월에 등대지기가 불 밝히는 유인 등대로 변경되었다가, 지난 2019년부터 102년 만에 다시 무인등대가 되었다.

위치 : 제주 제주시 사라봉동길 108-1

개방 시간 : 동절기 09:00~18:30

하절기 09:00~19:30

문의 전화 : 064-725-7799



제주특별자치도의회